

南濟州郡 安德面 大坪里

調查經緯/223

社會背景/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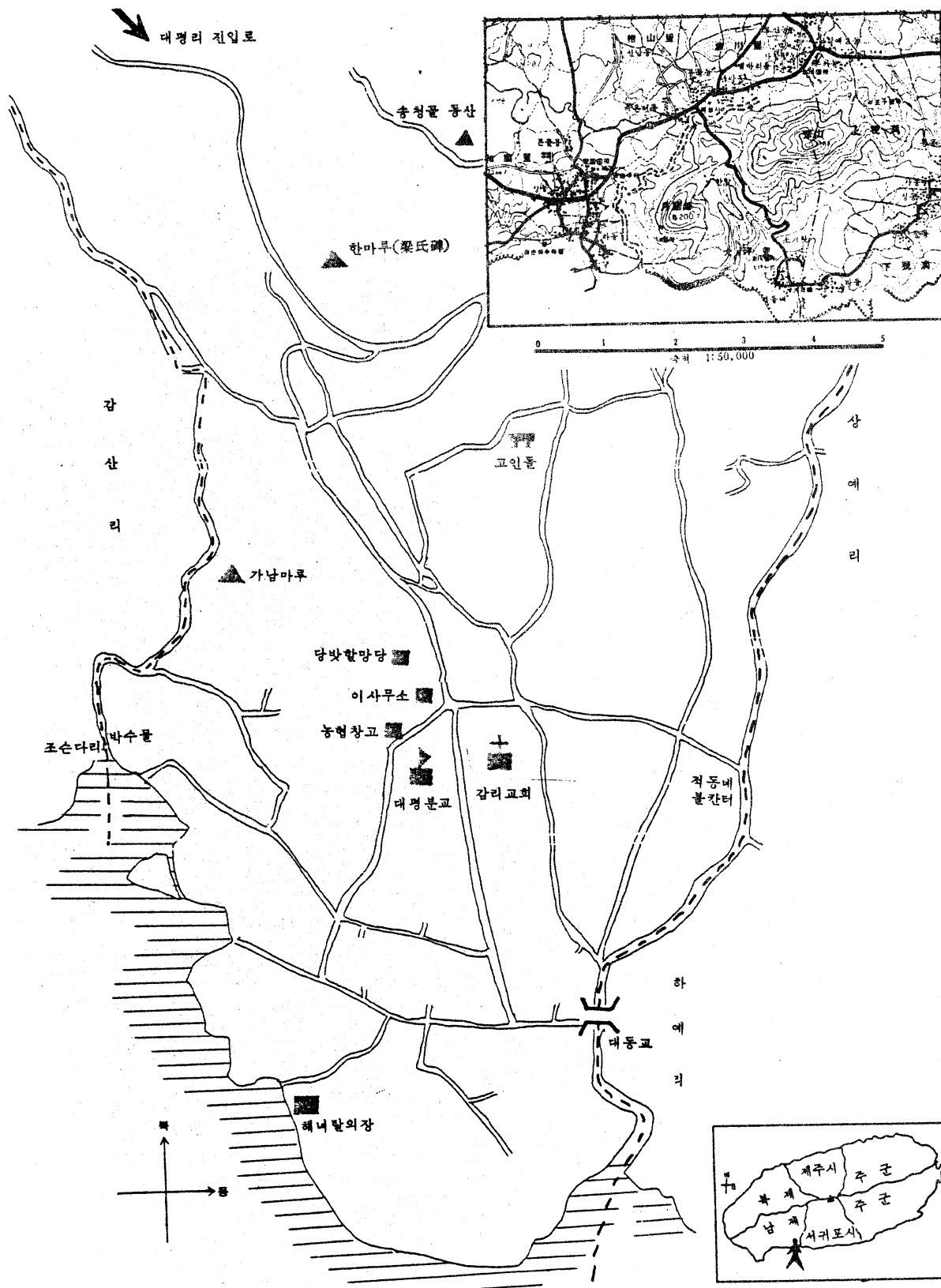
方 言/234

民 謠/252

說 話/276

信 仰/305

調査地位置圖



調査經緯

본 학과의 現地 學術調査는 연례적으로 1972년 서부터 본 학과 재학생들의 傳統文化에 대한 再發見 및 再評價의 기회를 갖고 강의로만 익힌 國語學, 口碑文學, 郷土文化史 등의 科目을 실제에 응용 조사하여 보려고 濟州道 全域에 걸쳐 실시되어 왔다. 1972년 8월 濟州道 北濟州郡 安德面(國文學報 第4輯에 게재)의 조사를 시발로, 1973년 北濟州郡·舊左邑 演坪里 牛島(國文學報 第5輯에 게재), 1974년 南濟州郡 大靜邑 加波里 加波島(國文學報 第6輯에 게재)를 조사하였고, 1975년 南濟州郡 中文面 中文里(國文學報 第7輯에 게재)를 조사하였다. 1976년 南濟州郡 城山面 蘭山里的 조사부터 게재지명이 당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學術調査報告書」로 바뀌었고, 그 이전 현지 학술조사 회수와의 관계하에 제5집으로 발간되었다. 1977년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學術調査報告書 第6輯)를 조사하였다. 이후 1980년까지는 조사활동이 불가능하여 중단되다가 다시 1981년에 재개되었는데 그 조사지역은 南濟州郡 安德面 德修里(學術調査報告書 第7輯)였다. 이때는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가 생김에 따라 두 학과가 같이 現地 學術調査를 행하였다. 1983년 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 조사부터는 본 학과에서만 단독으로 실시하였고, 같은 해 北濟州郡 涯月邑 郭支里를 조사한 國文科의 報告書와 합해 學術調査報告書 第8輯을 발간하였다. 1984년 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 1985년 南濟州郡 安德面 大坪里를 조사하여 이제 본 白鹿語文 創刊號의 부록으로 실는다.

제11회 現地 學術調査地로서 南濟州郡 安德面 大坪里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제10회 조사지역이 제주 서부지역의 중산간 마을이었던 점에 비추어 서부지역의 해안마을을 조사하고자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 地域은 軍山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립지역으로서 외부영향이 적었으리라는 점도 선정의 동기였다.

이번 學術調査에 임해서 그 준비단계로 숙식과 그에 따르는 취사문제, 그 외의 여러 문제로 해서 3번에 걸친 사전답사 끝에 大坪里 里長님과 婦女會長님 그리고 大坪分校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조사활동에는 7분의 敎授님들과 國語敎育科 在學生들이 참여하였고
선배님들이 도와주셨다. 그 活動分野를 보면 梁重海(社會背景), 玄容駿(信仰),
金榮敦(民謠), 梁淳珣(社會背景), 玄吉彥(說話), 崔圭一(方言), 金泰珉(方言) 敎
授님께서 지도해 주셨고 조사반원은 다음과 같다.(()속은 재학학년임)

社會背景：康斗詮(4), 吳永心(3), 許珉碩(3), 林京姬(3), 元邦弼(2), 洪銀英(2).

方言：姜晶植(4), 姜洪吉(3), 康在成(3), 朴貞美(3), 金榮信(2), 金榮愛(2), 吳東
植(2), 吳始烈(2).

民謠：金錫浩(4), 李性勳(3), 姜仁心(3), 高基順(3), 玄順姬(3), 高弘子(2), 羅榮
姬(2), 梁仁瑄(2).

說話：康舜卜(4), 金孟宗(3), 高孝實(3), 李玉洙(3), 金美鈴(3), 姜恩姬(3) 吳昌煥
(2), 崔榮希(2), 宋美羅(2).

信仰：高美蘭(4), 李昌錫(3), 任容震(3), 金沃禧(2), 梁順善(2), 金敬心(2).

특히 高光敏, 金智弘, 尹致富, 玄丞桓, 李正鎰 선배님께서 조사를 도와 주셨음
에 사의를 표한다.

調査活動은 1985. 8. 5~8. 8까지 3박 4일간에 걸쳐 행해졌는데 활동경과를 보
면 現地調査方法論을 각 반원들이 분담하여 정리하고 유인물을 만들어 조사전
에 나눠 주었다.

제1일 : 12시에 大坪에 도착, 대평분교에 짐을 풀고 里長님으로부터 마을 현
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예비조사를 겸한 조사활동을 폈다.

제2일 : 첫날의 調査內容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펴 나갔다. 조사
활동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특히 安德面 面長님, 마을 里長님
을 비롯한 여러 마을 주민들의 호의는 너무도 고마웠다. 가까운 지역에서 교편
을 잡고 계시는 여러 선배님들도 오셔서 우리들을 격려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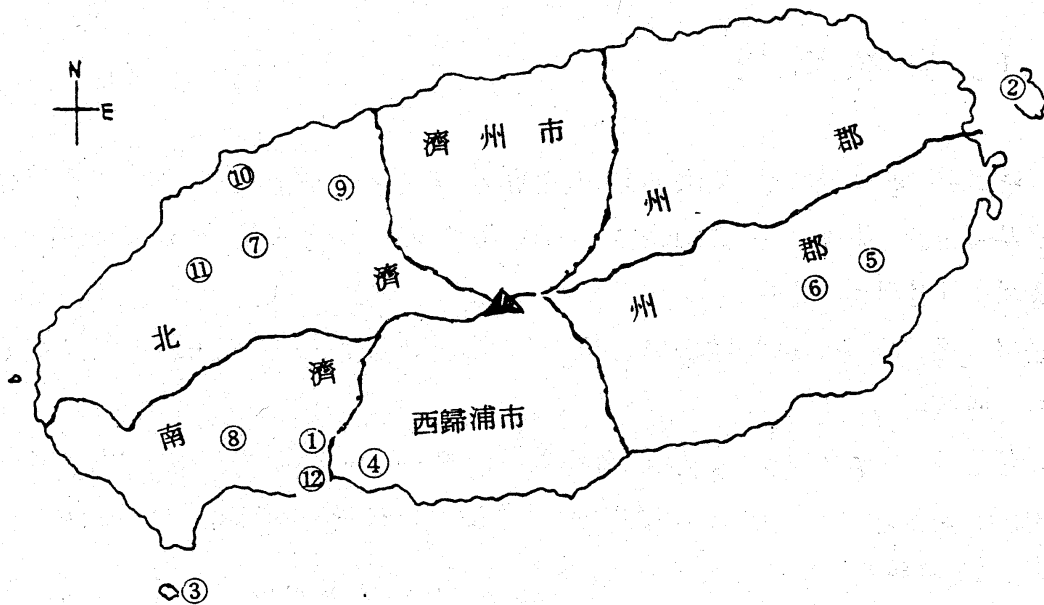
제3일 : 전일과 마찬가지로 조사활동을 하고 지금까지 활동에 대한 자체 評
價會를 가졌다.

제4일 : 조사활동의 마무리를 위해 評價會를 통해 나타난 바를 바탕으로 미
비한 부분을 보충하고 조사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學術調査 活動을 마쳤다. 조사에 임하기 전인 준비단계를 지
나 이제 조사를 마치고 조사경위를 쓰려고 하니 아쉬움이 남으나 다음을 위한
경험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끝으로 이번 調査를 도와주신 여러 敎授님과 조사준비에서부터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교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아울러 귀찮은 우리들을 맞아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里長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安徳面 面長님, 南濟州郡守님, 바쁜 가운데서도 후배인 우리들을 찾아와서 격려해주신 선배님들과 그 외로 음과 양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報告書를 내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편집자)

〈학술조사지역 분포도〉



- | | |
|-----------------|-----------|
| ① 안덕면 창천리 | ⑦ 애월읍 남읍리 |
| ② 구좌읍 연평리 (우도) | ⑧ 안덕면 덕수리 |
| ③ 대정읍 가파리 (가파도) | ⑨ 애월읍 광령리 |
| ④ 서귀포시 중문동 | ⑩ 애월읍 곽지리 |
| ⑤ 성산읍 난산리 | ⑪ 한림읍 명월리 |
| ⑥ 표선면 성읍리 | ⑫ 안덕면 대평리 |

社 會 背 景

目 次

- | | |
|-----------|-----------|
| I. 自然環境 | III. 人文概況 |
| II. 歷史的背景 | IV. 產業構造 |

I. 自然環境

대평리는 행정구역상 南濟州郡 安德面에 속한다. 대평리는 해안가에 위치한 자연부락으로 북쪽에는 軍山峰(334.5 m), 동쪽에는 대동교를 경계로 서귀포시 하예동과 인접되어 있다.

근접마을로는 서쪽에 柑山里, 북쪽에는 倉川里를 두고 있으며, 남쪽에는 바다가 連接되어 있다.

大坪里가 행정구역상 安德面 倉川里에 속하기 때문에 면적은 창천리를 포함하여 약 397만 m^2 가 된다. 대평리는 일주도로에서 약 3.75km 남쪽으로 내려와 있어 그 지형은 일주도로보다 낮다.

서쪽 진입로에는 화순~대평 간의 시외버스가 50분에 한 차례 있고, 동쪽으로 서귀포시 하예동을 종점으로 하는 시내버스가 16분마다 운행된다. 주민들은 이 버스를 이용하므로 교통의 어려움은 별로 없다.

마을 전경을 살펴 보면, 마을 중심으로 서쪽에 병풍그정(또는 조순다리)이란 절벽이 바다와 연접되어 있다. 그 윗쪽에 가남마루 동산, 햇마루(또는 기동산), 송천굴동산이 있다. 가장 동쪽에 軍山(서산, 구산, 굴산으로 불리워졌다)이 있다.

이 부근은 높은 지형으로 마을과 크게 경사를 이루고 있다.

샘물로는 막은골물이 있으며 이 물을 이용하여 주변일대의 농사를 짓고 있다. 길이 험난하므로 식수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마을의 해변가에는 당포가 있다. 당나라 때 조공을 바치던 포구라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고기가 모여 논다는 방어울이 있다.

군산 앞에는 아기엄개돌(魚兒石)이란 자연물이 있는데, 이는 미륵이라고도 불리운다. 이 앞을 미륵골(또는 미륵동)이라 부르고 있다. 미륵이란 돌에는 전설이 있다. 미륵돌 앞에 籠櫃가 있었는데 그 농계의 서북쪽 구석이 부서지면서 피비가 내렸으며 그 농 속에는 제주도 백성이 3일 먹을 식량이 들어 있었다고 전하여 온다.

그 외에 거북이 발가락이 다섯 개라고 하여 그와 비슷하게 생긴 오족개, 간사한 이방과 같다해서 이방여(하예동과 대평리 사이 이간이 생기게 한 것이며 해산물 소득시 싸움도 빚어진 일이 있었다)가 있다.

대평리의 전체 모양은 앞이 둥글고 뒤는 축이 벌려진 大龜(또는 대곡: 큰 거북이)처럼 보인다고 한다.

II. 歷史的 背景

원래 예례리(열리라고 불리기도 함)에 속했던 대평리는 약 250년 전 梁氏의 孫에 의해 設村되었다. 양씨 설촌 기념비는 마을 전경이 한 눈에 들어 오는 햇마루 꼭대기에 세워져 있다. 이 비문에 따르면 한 노인이 꿈 속에 나타나 통정대부인 양공에게 一杖一鞋를 주면서 땅을 찾아 뜻을 펴라고 했다. 이에 양공은 혼자서 島全城을 돌아보던 중 군산에 올라 바라보니 노인이 제시한 땅이 바로 대평리임을 알고 여기에 개척의 터전을 잡고 마을을 이루었다고 쓰여져 있다.

대평리의 행정구역상 변화는 예례리에서 시작하였으나 약 150년 전 창천2구로 되어 있었으며, 해방이 되고 나서 1946년에서부터 대평리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변화는 원래 하예 하동과 구분이 다리(대동교) 하나로만 됐고 마을 구성이 同 부락처럼 되어 있어 예례리에 속했으나, 외국의 배가 드나들어 귀찮다는 핑계로 창천리로 떼어 버린 것이라고 한다.

대평리란 뜻은 '큰드르', '난드르'의 뜻으로 땅이 돌출되었다는 데에서 유

濟州島部落誌(I)

래된 명칭이다. 지금까지의 행정 책임은 구장 11대와 이장 20대에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마을에 입주된 성씨별 분포를 보면 선조인 梁氏, 약 30년 뒤에 李氏, 계속해서 金氏, 姜氏, 張氏 등이 들어 왔다.

유적물로는 고인돌이 2개 있으나 하나는 소실되었다. 또한 선비기돌(또는 선비쓴돌)이 가남마루동산의 한 쪽 끝에 있다. 이 곳의 전설을 따르면, 옛날 진시황 때 三神山 不老草를 캐러 왔던 徐氏 등이 동남동녀 500인을 거느리고 여기를 지날 때 낙오가 된 한 선비가 이 벽에 글을 썼다는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옛날에는 그 글씨가 보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볼 수 없고 벽만 남아 있다.

堂으로는 本郷堂이 있다. 그 당의 연대는 알 수 없고, 당 할망이 살았던 집터가 남아 있다. 이 할망은 成氏로 6자매 중 큰 딸인 난드르 할망이다. 아방당은 예례리에 있다.

Ⅲ. 人 文 概 況

이 마을은 고지대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와 연접되었으므로 4·3사건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이 때에 주민들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다는 것 뿐이다.

1946년 9월 1일 안덕면 창천리에서 대평리의 단위 행정부락으로 분리되었고 현재 가구수 194세대에 인구 78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주로 반농반어의 생활로 단조롭다(표1). 주민의 의식구조면에 있어서는 교육열이 보통 이상이며, 단합이 강한 편이다.

〈표1〉 대평리 가구 및 인구

가 구 수			인 구 수		
계	농 가	비농가	계	남	여
194	179	15	780	372	408

('84. 10. 1. 대평리사무소제공)

표2에서 보면 호주별 성씨 분포는 거의 김씨, 양씨, 강씨, 아씨가 전체 194가호의 반수(93가호)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戶主別 姓氏分布

(단위 : 명)

양	김	강	이	장	고	임	문	원	박	한	소	최	정	오	천	진	유	윤	현	성	송	나	좌
25	32	25	11	9	8	7	1	2	3	1	1	1	3	4	1	1	2	1	1	1	1	1	1

('84.10.1. 대평리사무소제공)

집들은 바닷가와 가까이 접해 있으며 전체가 9반으로 되어 있다. 주민들을 위한 행사나 공동작업 시에는 마을 주민들이 단결하여 그 힘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

주택구조는 거의 개량된 지붕이며 타 농촌의 경우와 같이 반수 이상이 슬레이트이고, 현대적 문화시설도 50% 이상 갖추고 있다.

〈표3〉 문화복지시설현황

(단위 : 가구)

전기시설	급수시설	T·V	전 화	신 문	냉장고	차(승용차)	개량변소
194	194	182	93	중앙 17 지방 126	98	개인택시 1 영업택시 2	180

('84.10.1. 대평리사무소제공)

또한 문화사업으로는 아스팔트포장, 전기, 수도시설을 말할 수 있다. 포장은 1958년에 현재 도로인 감산~대평구간을 개설했다. 이 도로는 전 주민의 2년 동안의 노력으로 완성된 것이다. 그 전의 길은 속칭 쇠울목(또는 쇠목질)이란 곳으로 다녔다. 지금은 '69년부터 운행된 버스가 이 도로를 이용하여 운행되고 있다. 도로 공사비는 재일교포도 많이 부담했다.

전기는 1968년에 재일교포의 도움으로 설치되고, 상수도는 1970년 공동수도 설치에서 1972년에는 개인수도, 1985년 현재 100%의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졌다. 여기에서 보면 특이한 것이 문화사업에 재일교포의 도움이 컸으며, 주민의 노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의 생활 필수품은 중문, 서귀, 화순 등지에서 구입하고 있다. 안덕면에 속해 있지만 서귀포시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며, 편의상 시내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濟州島部落誌(I)

주민의 종교는 거의가 불교이며, 감리교 신자는 극소수이다. 그러나 이 마을은 절이 없다. 불교신자들은 중문, 서귀포의 절, 산방산, 안덕 등으로 나간다.

어느 제보자에 따르면 이 곳은 무당이나 점장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의식제인 기우제나 포제는 약 20년 전부터 실시하지 않고 있고, 명절은 음력설을 지내고 있다. 堂祭는 마을 전체로 지내고 있다.

〈표4〉 학생현황

(단위 : 명)

학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대 학
남	1	2	3	4	5	6	계	1	2	3	계		
남	8	7	4	5	2	8	34	8	14	8	30	35	
여	9	5	12	4	8	11	49	4	10	8	22	25	8
계	17	12	16	9	10	19	83	12	24	16	52	60	8

('85. 3. 안덕국교 대평분교 제공)

교육 기관으로는 1946년 개교한 대평국민학교가 있다. 처음은 학급 인원이 50~60명 되던 것이 지금은 표4에서 보듯이 겨우 20명 내외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는 특히 이촌향도 현상과 가족계획사업으로 어린이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학급 학생수가 적어 운영상 안덕국민학교 대평분교로 축소되었다. 각 학년은 1학급이며, 교사 2개가 있으나 별관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별활동시에 가끔 별관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학교 출신은 100%가 안덕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 진학은 약 70~80% 정도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대학진학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마을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을기관으로는 공식단체인 부녀회와 청년회, 어촌계 조합 등이 있다. 비공식적 단체로 상조계, 친목계가 있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을 위한 경로당이 있으나 시설이 부족하며, 창고와 마을회관이 있다.

새마을 사업 현황에서 '84년 '85년 업적을 보면 표5, 6과 같다. 여기에 첨가될 것은 군산진입로와 하수도 공사 계획이 있다.

〈표5〉 공공시설물

(단위 : 평)

창 고	경로당	저장고	대 지	전	임 야	기 타
50	8	.	600	.	.	.

(84.10.1. 대평리사무소제공)

〈표6〉 새마을운동 10년간 성과

구 분 사업편	단 위	사업량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년도
			계	지원	주민부담	
계			28,176	7,194	20,982	
마 을 회 관	평	33	3,380	780	2,600	1976
창 고	평	50	39,088	2,000	1,988	1977 - 78
마을안길포장	평	155	20,808	4,414	16,394	1972

(대평리사무소제공)

IV. 産 業 構 造

이 마을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며, 그와 더불어 어업이 병행되고 있다. 옛날에는 대평하면 고구마라고 할 정도로 구근식물을 많이 재배했는데 지금은 표7에서처럼 하우스 농사와 특용 작물 재배, 과수원 등으로 재배 작물분포가 달라졌다. 그래서 표8처럼 주민의 소득도 날로 높아지면서 생활의 여유가 생겨났다.

표7에서 보면 평야보다 임야가 많으며 농작물로는 보리, 콩, 참깨인 밭농사와 비닐 하우스의 특수작물인 바나나, 파인애플의 재배가 성행되고 있다.

〈표7〉 토지이용현황 (호당 경지면적 0.97ha)

(단위 : ha)

합 계	경 지 면 적					
	계	전	답	과수원	임야	비닐하우스
	314.2	150.8	4	18	141.4	1,500 평

('85현재, 대평리 사무소 제공)

濟州島部落誌(I)

〈표8〉 호당소득상황

(단위 : 천원)

년도 소득	'78	'79	'80	'81	'85
계	1,850	2,100	2,300	2,500	4,000
농업	850	960	1,000	1,050	1,500
어업	640	720	800	900	1,700
기타	360	420	500	550	800

(대평리사무소제공)

또한 산업구조의 한 가지 특징으로 수산업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어촌계 조합원의 명부에는 해녀의 분포가 표9에서처럼 나타나고 있다.

〈표9〉 해녀연령별 분포

(단위 : 명)

연령	21—30	31—40	41—50	51—60	61—69	계
인원	7	12	28	15	12	74

('85현재 대평리어촌계조합제공)

이들 해녀의 일년 총 생산액은 약 7천만원이 되고, 조합원 외의 소득이 천만원, 어업활동(자망, 덩장, 정치망 등)의 소득이 4천만원 정도로 수산업 소득이 매우 높다.

해녀복지시설로는 탈의장이 85년 정부지원 150만원과 자비 250만원 부담으로 준공되었다. 10평 남짓한 여기에는 온수보급과 샤워시설, 개인함도 갖추어져 있다. 또한 해녀 조합 가입시 혜택인 잉여자금은 연간 7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어 학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해녀의 중독성 약물(뇌선, 사루빈 등)의 복용문제는 아직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해녀들의 건강에 지장을 주고 있다.

어선현황을 보면 동력선이 1t이상 5척과 풍선 5척이 있으나 선착장 시설이 미비해서 어업활동에 장애가 많으며 태풍이 불면 배에 파손의 우려가 크다.

그밖에 가축현황을 보면 표10에서와 같다.

〈표10〉 가축사육현황

(단위 : 마리)

소	말	돼 지	닭	개
80	.	9	.	5

('84.10.1. 대평리사무소제공)

특징으로는 소가 많으나 농기구 보급으로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육우로만 기르고 있다. 또한 개량변소로 돼지의 수도 매우 적은 편이다. 이는 주민들의 위생정신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표11에서 보면 농기구는 약 40% 경운기가 보급되어 있어 경작과 수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1〉 농기계 보급실태

(단위 : 대)

경 운 기	딸 딸 이	동력분무기	수동분무기
87	4	87	.

('85현재. 대평리사무소제공)

또한 농협창고가 있어 비료나 수확물을 보관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이 마을 산업 구조면의 특징으로는 고구마, 맥류가 주산업이었는데 비닐하우스농사가 성행되고 있다는 것과, 수산업 양식이 이루어져 인근 부락인 감산, 창천리의 감굴, 참깨 주 재배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다에서 바라본 군산]



方 言

目 次

調査経緯 및 方法

- | | |
|---------|----------|
| I. 農業 | 3. 범벅類 |
| 1. 穀類 | 4. 其他 |
| 2. 食用作物 | III. 雜草類 |
| 3. 農具 | IV. 漁業 |
| II. 飲食 | V. 地名 |
| 1. 떡類 | VI. 其他 |
| 2. 밥類 | |

I. 調査経緯 및 方法

0-0. 본 보고서는 1985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4일 동안 南濟州郡 安德面 大坪里에서 조사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農作物 및 農具, 海女, 魚名 및 海藻類 그리고 地名과 飲食에 관한 것이다.

0-1. 大坪里는 半農半漁의 해안마을로 속칭 “난드르”라 불리운다. 난드르는 ‘난(나오다:出)+드르(野)’로 “들에서 나오다” 즉 들판에서 바다 쪽으로 나왔다고 해서 “난드르”라고 한다.

0-2. 飲食과 農業 그리고 漁業과 地名의 두 분야로 나누어서 조사를 행하였다.

0-3. 조사 첫날은 반원 전체가 적절한 제보자를 구하고 조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마을의 지리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생활의 양식을 알아보았다.

이틀째부터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2~3명의 제보자들을 모셔놓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문답식과 유도방식을 병행하여 조사를 했으며, 적절한 제보자의 집을 방문하여 조사하기도 했다.

마지막날은 이어 조사된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제보자를 방문하여 확인하면서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0-4. 정확한 음운전사를 하기 위하여 제보자의 제보를 그때그때 필기하기도 하고 미리 준비해 간 녹음기에 녹음을 하였다.

0-5. 조사과정에서 특이하게 느낀 것은 해안가라서 그런지 海岸名이 특히 발달했다는 것과 ‘되엄이(용왕할망뿔)’, ‘수에기(고래)’, ‘막쟁이(상어)’, ‘미(해삼)’ 등의 魚名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의 기술순서는 農業, 飲食, 雜草類, 漁業, 地名, 其他의 순이다.

農業은 제보자의 설명만을 기술했고 飲食·雜草類는 대화체 형식을 취했으며 漁業이나 地名은 세부적인 항목만 나열했다. 각 항목은 방언 그대로 전사하였으며, 조사자들의 질문일 경우는 < >로 구별하였고, 同物異名인 경우는 ()속에 표시하였다(본 방언의 /외/는 [we]로 실현된다).

I. 農 業

I-1. 穀類

① 보리 : 겉보리는 녀줄보리 갈당 두줄보리랜 현 것이 나와 가지고 주로 보리랜 형 거 두줄보리허고 쌀보리라고 꺾줄 노랑현 거. 보리도 대맥이, 쌀보리, 맥주맥, 맥주맥에도 호주맥.

② 조 : 모인조, 호린조, 그것이 지금 사람들은 모를 거주마는 전의 조 나올 때 조이름이랜 현게 동대기, 모시리, 뱅아리조, 이제 모시리가 모살시리랜 허지.

③ 나룩 : 논에 가는 것 주로 나룩, 옛날에는 자치비랜 현 것이 있고, 흰나룩

이런 현 것이 있고, 개량종은 멧호, 멧호랭 행 이름을 잘 모르크라.

④ 산디 : 산디는 나룩이영 같은 종(種)인디 그저 밥을 허며는 밥에 굶이 좀 짜주게. 풀이 없어. 산디밥이 풀이 없어. 모여가지고. 산디도 좁쌀산디가 싣주. 이제사 나오는 좁쌀산디는 막 흐려. 좁쌀산디랜 현 건 아주 흐린거.

⑤ 콩 : 빨어가는 건 돔비랜 현 게 있고 지금 안허주마는 강남콩이란 게 이서. 개량종, 두블콩이다. 까만 것도 싣고, 빨간 것도 싣고, 보리콩도 싣고.

⑥ 其他 : 피, 멧말, 유채, 피

I-2. 食用作物

① 마늘 : 마늘도 패마늘이 싣고, 패마늘, 신디비, 양파랜 현 거.

② 양희 : 집 지실 때 많이 허는 건디, 옛날엔 양희라고 상당히 그 부루기 나물지 담으은 맛 좋고, 탕시허은 맛 좋고.

③ 가지 : 검은가지, 촌지가지, 감시롱 현 것도 있고, 흰 것도 있고.

④ 오이 : 오이랜 현 건 장에 담갔다가 먹질 못허주. 물이 돼부렁. 물외 종 류니까. 지금 나오는 스랑스랑 현 게 오이주게.

⑤ 호박 : 옛날 갈아 난 거 단지 붉은 호박 뿐이주. 춤 툴락이랜 현 거 있구 나. 태왁 맨들어 난 거, 박새기 만들어 난 거.

⑥ 옥수수 : 강남대죽이랜 현 게 있고, 비대죽이랜 현 게 있고, 살레대죽이나 비대죽은 한가지. 강남대죽은 부루기 사는 거, 아른대기대죽은 고고리 삼는 거. 보리 깍듯이 깍앙 고고리 허은 대죽엿도 좋고, 주로 엿에 들어가주.

⑦ 갯늬물 : 이파리가 가룻가룻 매왕 김치에 양념으로도 놓고, 쿠싱허주.

※ 쿠싱허다 : 고소하다.

⑧ 무우 : 단지눔빼, 쇠뿔눔빼, 쇠뿔눔비랜 현 건 진진현 거고 땅우트레, 단지눔빼 땅아래 드는 거고.

⑨ 고추 : 여러 종내기주. 사고치 있고, 외고치가 있주마는 사고치는 옛날 고치를 말허는 거고, 외고치는 흙에 나오는 것ㄴ라 외고치.

⑩ 버섯 : 소낭버섯, 독버섯 있고, 톨똥버섯이라고 허는 큰 목장에 가은 그건 사름이 먹어도 독이 어선 좋은 거고, 소낭버섯이엔 현 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름 죽넌 허는 거주. 독버섯이 있고 그냥 일반버섯이 있고, 낭에 나는 건 초

기고.

- ⑪ 其他 : 오가리(무우말랭이), 놉배(초마귀), 당배추, 녹물, 새우리, 유, 동우
미나리, 조리(참조리, 개조리).

I-3. 農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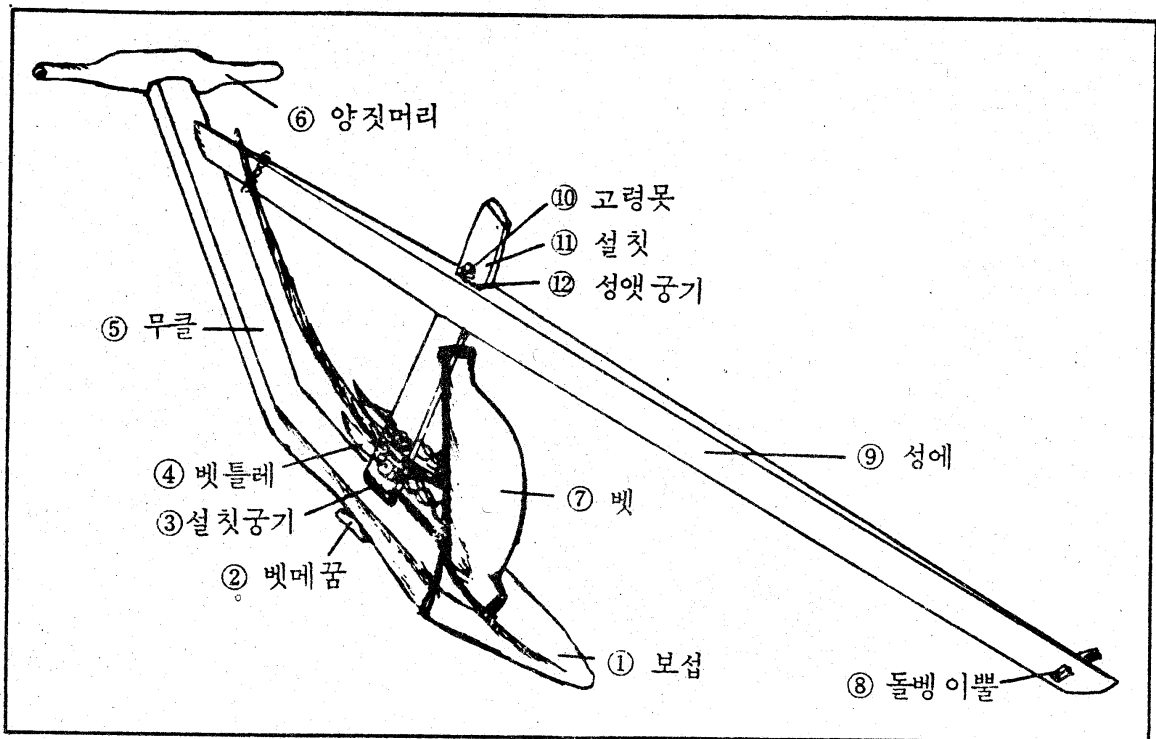
- ① 어레미(箕) : 치는 건디 얼맹이, 대채, 중채, 가는채 있주.
② 곶배 : 흙에 가민 병맹이진 거, 못는 거, 처녀 닦은 것고라 곶배엔 허주.
③ 바지개 : 주로 육지 사름들이 쓰는 건디 대로 엮영 지게에 놔그네.
④ 보리클 : 보리 홀트는 거
⑤ 솔박 : 날래 거들 때 거리는 거.
⑥ 다비 : 떼(태역) 같은 거 일룰 때 쓰는 거.
⑦ 곡괭이
⑧ 굴채(삼태기) : 떠굴채, 순부기굴채
⑨ 섬비 : 밭 갈앙 곡식 뿌리든 곳는 거
⑩ 당근네 : 날래 젓는 거. 나무로 영 흥영 길쪽 흥 걸로 끄서갔다 끄서왔다
하는 거.
⑪ 잠데
⑫ 소스랑(쇠스랑)
⑬ 낭가래죽

I-4. 其他

벧칼, 오리목, 불머, 질매, 멩에, 질매공쟁이, 접개, 푸숨, 솜비줄, 등퀴,
쉐석, 가래기클, 중실이, 판장클, 줄도래기, 도깨, ㄱ래(맷돌), 날래, 물뱅이
(연자방아), 고래독석, 준경, 망울, 굴갱이, 작대기, 홀테

II. 飲 食

II-1. 떡 類



(잠데의 부분명칭 및 발갈이 사진)



① 침떡 : <영장 나쁜 큰똥 해 가는 거 뭐라 마씀?> 큰똥 해 가는 거. 일꾼
쳐리는 거, 떡 맥이는 거주. <떡 맥이는 거예? 떡은 뭐뭐 행강 맥입니까?>
침떡으로 해당 맥여서. 혼비씩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혼비씩.

② 똥떡 : <옛날에 아이들이 똥통에서 떨어지나 허든 떡 허영 먹이지 않습니
까?> 똥떡(웃음) <몇 개 만듭니까?> 백개 허영 백사름을 먹인덴 허난 곤르
주. 똥통에서 아이들 뒤보래 갔당그네 알르래 떨어지든 거 좋지 안 헌다. 똥떡
이라고, 똥떡 맨들엉 요만큼(손짓으로 조그맣다는 모양을 해 보이며) 헤게 맨들엉
이네 이사람도 허나, 저사람도 허나. 백사름을 취야 가으가 굿지 안헌다. <거
뭐로 만듭니까?> 밀ㄹ루나 아무 ㄹ루나 맨들엉이네 이거 똥떡이여 똥떡이여
허영 주주(웃음).

③ 새미 : <새미가 뭐우파?> ㄹ뎡ㄹ루로 허영 영영 좁앙이네 떡을 맨들주.
ㄹ뎡로 빙 허는 건 빙떡, ㄹ뎡로 못허는 거 이서? 새미해 허고, 빙해 허는 거
옛날에 그거. <쉬 놓는 거광?> 새미에 쉬 놓주. 눅빠채도 허고. <동그락허게
영행 쉬 왕이네 영영 좁앙이네 반으로 접엉 마씀?> 동그락허게 둘같이 허영
좁앙이네. <그것이 뭐라마씀?> 새미.

④ 송편 : <그거 똑 부치기만 허고 어떤 땐 좁기도 허지 않습니까?> 좁기도
허곡, 곤떡으로도 송편이랜 헌 것도 허매. <송편은 뭐파?> 이제 사름들은 보
통 허주마는 옛날은 거 큰떡으로 했주마는 이제도 그 떡은 허여.

⑤ 지름떡 : <식게 때 떡 맨들엉이네예, 별 닥게 토돌토돌허게 똑 놀렁 허는
떡은 뭐우파?> 지름떡이랜 헌 거. 옛날에사 거 해나시냐. 요새서라 그 떡이나
허주. 옛날에사 그 어른들 대갈시떡 허고, 어이구 춤 어느절에.

⑥ 밀떡, 보리떡, 조떡 : <밀채나 보리채로 떡 같은 건 못합니까?> 밀채로
헌 거 밀떡이랜 허고, 보리로 헌 건 보리떡, 조로 허든 조떡.

⑦ 든디떡 : <방에 강으네 보리 쏴아가민 채로 쳐정 밀에 ㄹ루 나오지양 그
거?> 든디고루. <그걸로 떡 안합니까?> 든디떡이랜 허주. <건 어떻게 만듭니
까?> 돌래떡 ㄹ추룩 동글락허게.

⑧ 돌래떡 : <돌래떡은 뭐파?> 돌래떡이엔 헌 건 ㄹ뎡로 만드는 거. 또 구분
이 트나주게. 옛날에 장사지내젠 허민 돌래떡 허영 상주들 멕이주. <그걸 뎡
말로 뭐랜 험니까?> 등절비라고 허주. 옛날 상주들 멕여난 떡ㄹ라. <그걸 고
적이랜 안합니까?> 고적으로 맨들아 가주게. 고적이엔 헌 건 일가들이 모여서

허여가는 떡마라 고적이엔 허주게. 떡이름은 등절비.

⑨ 빙떡 : <ㅁ 멀로 영 넘적하게 지저그네 만드는 건?> 아! 빙떡, 연빙.

⑩ 췌기떡 : 옛날에 전시에 보리마루 해다그네 진짠 상에 올리젠 밥떡으로 허영 허곡, 말젠 잼질아난 건 식은 밥 남으민 그것에 혼디 허영 췌기떡이라고 보리마루영 혼디 섞영 우리도 어릴 때 먹어 봤는디 그뻐 어신 때난 것도 맛이 좋았는디!

⑪ 절뻔, 솔뻔, 제뻔, 곤침떡, 중개, 앞개, 인절미 : <제일 많이 만드는 떡들이 어떤 떡이파, 식게나 소상때?> 제일 많이 만드는 건 소상때 절뻔, 솔뻔, 아 처음은 제뻔이 들어 가는디, 제뻔은 침떡 마치 맨드는 거. 곤침떡, 중개, 앞개, 인절미, 그거 떡이름이주. 떡본으로 맨드는 건 솔뻔, 앞개엔 현 건 네귀 방장현거. <제뻔을 땀 말로 뭐랜 안헉니까?> 제뻔 허문 그 이름이 다 들어가는 것이 제뻔이주게. 제 지내는 거난 게. 제뻔이엔 현 건 곤침떡으로 맨드는 거 큰떡 모양으로 된 것마라 제뻔이엔 허곡. 그외로 곤썰로 맨드는 게 췌뻔, 솔뻔, 중개, 앞개, 조개송편이여, 무신거여?

⑫ 감저떡, 감저침떡 : <옛날에 막 송년에 감저주시로도 떡해 냈수파?> 감저주시로 떡 안허고, 주로 고구마 몰려 가지고 옛날엔 고구마떡, 고구마침떡이라고 허는, 고구마 몰려그네 방에에 지영, 이젠 집에서 쪼주마는 옛날엔 몰방에라고 그것을 둥그령 마래 굴앙 그것을 청 먹었주게. 감저뻔때기로. <그것을?> 감저떡, 감저침떡, 더운 뻔 상당히 맛이 이섯주, 몰라불민 뭐허주마는 아주 뜻뜻헌 뻔 감저가 돌롭허난 상당히 맛이 좋았주.

Ⅱ-2. 밥類

① 멧밥 : <제사때 올리는 밥마라 뭐랜 헉니까?> 멧밥이엔 허주.

② 스래기밥 : <보리썰스래기 있잖우파. 스래기로 현 밥은 뭐랜 헉니까?> 스래기밥이랜 허주. 싸래기밥이랜도 허곡.

③ 보리밥 : <보리 낱 밥헉 때 맛 좋게 허젠 콩이영 몬 놓지 안헉니까. 어떤 때엔 그런 거 하나도 안놓고 보리로만 밥허영 먹으민 거 무신 밥이랜 헉니까?> 그냥 보리밥이랜 허주.

④ 조팍 : <조로 허문 조팍예?> 예. <모인조팍, 흐린조팍 경 안굴읍니까?>

아! 무사 안ㄴ라게, 모인쌀로 허민 모인밥이엿 허곡, 호린쌀로 허민 호린밥이엔 허곡.

⑤ 반지기 : 보리쌀에다 곤쌀 섞으면 반지기라고 허곡.

⑥ 통보리밥 : <통보리밥이랜 현 건 못들어 봤수파?> 아! 무사 못들어봐. 통보리밥이엔 현 게 처음 옛날 방에 질 때 일단 저마 봐서 물리왕이네 이제는 방에 정 그걸 막 뭉게가든 요새 기계 깎은 거 모양으로 허영 허는 게 그걸 ㄴ라 통보리밥이랜 허곡, 또 흥번 방에 저그네 그냥 깎건 ㄴ래 곤건 그냥 보리밥이랜 일반 보리밥이랜 허곡, ㄴ래 안 곤건 그냥 다시 방에에 자주 밀린 건 통보리밥이랜 허곡.

II-3. 범벅類

<간단히 해먹는 걸로 범벅같은 거 많이 해먹지예?> 예, 범벅같은 거 그자. <뭘로?> 옛날에도 감자나 고구마, 고구마가 나머는 큰 송년이 어섯고 육지서 안들어온 땐 꺽장현 송년이 이섯주게. 고구마 나는 해는 큰 송년이 어서 땐 허메. <감저로도 범벅해 먹읍니까?> 예, 고구마 나기 시작허난 뭐 주로 감저 양식했주 뭐. <감저로 범벅헌건 뭐랜 험니까?> 감저범벅이엔 허주. <범벅에는 다 ㄴ루가 들어가야 험니까?> 예, 그때는 보리ㄴ루주. 무신 ㄴ루가 이서. <밀ㄴ루?> 밀ㄴ루도 이섯주마는 밀ㄴ루가 하도 귀허영. <ㄴ뭇은?> ㄴ루 거기지. 밀ㄴ루, 감저뻬때기 부순 ㄴ루로 허영. 그 ㄴ루로 범벅 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주 뭐. <감저말고 뭐 판거 놓지 안험니까?> 지슬, 지슬범벅. <또 판거?> 그외는 범벅허는 게 엿주. 감저호고 지슬은 떡 범벅용으로 대강 썼주. <이렇게 놓는거에 따랑 이름 부쳐쭈다예. ㄴ루에 따랑은 안붙읍니까?>. ㄴ루에 따랑은 안붙여. <능쟁이?> 능쟁이엔 현 건 ㄴ뭇ㄴ루, 분까ㄴ루 아래 짓고라 능쟁이, 나쁜 ㄴ루, <그걸로 범벅 안험니까?> 아, 무사 안허여게. <뭐랜 험니까?> 능쟁이 범벅이엔 허주게. <옛날 좁쌀 막 잘허게 되가든> 조떡 맛있지. 호린좁쌀로 해그네. <그건 범벅 안험니까?> 무사 안허여. 밀ㄴ루로 할 수가 있고. 꿀이낭 침만 허든 되는거난. <또 뭐 있수파?> 판거 뭐 하영 해난거. 속범벅, 툷범벅 또 무신. <아, 여긴 또 바당 이성 툷범벅도 있구나, 툷으로 범벅허민 막 이상홀거 담다.> 아니. 그건 아주 제일 쏜거. 아, 경해도 ㄴ루 막 붙여사, ㄴ루 어시민 안되어 보리ㄴ루나 밀ㄴ루나 ㄴ뭇ㄴ루나 들어야.

II-4. 其他

① 둥비 : <콩채 엇수파> 콩으로 허영 장허고 골아당 죽도 먹고 콩지름도 허고 <뵈도 허지 않습니까? 소금 놓고 허영 지금 두부 삶은 거> 둥비. 저 옛날엔 둥비랜 해낫주게 잔치허젠 허든 그 둥비해사 되어.

② 오메기 : 오메기엔 현 전 조로 맨들아서. 그 오메기 삶아그네 탁배기 맨들 았주. 술을 맨들았주. 그것에서 청주가 나오고 탁배기가 나오고 오메기엔 현전 술 원료.

③ 웃쩍 : 웃쩍 굶은 건 이제 감주영 멋지게 허영 술안주로 동그락현 거 위에 놓은건디 사는 집은 계란으로 허영 멋지게 맨들아 놓고 허는 게 이젠 동그락동그락허게 맨들아 놓곡 허는 거.

④ 물룣 : 옛날에 물룣 삶아가지고 보리ㄴ루허영 떡도 해먹고 큰 양식으로 해 낫젠 허주. <물룣은 이제 뭐랜?> 물룣은 여름검질에 속헌 건디 항아리에 담아 그네 물룣을 삶젠허민 항아리에 담앙 ㄴ시락 꺾ㄴ장 모양으로 훈 5일 팔려사 그걸 먹넌 허주게. 재기 삶아불민 항아리가 까져부는 때문에 ㄴ스락 불로 땅아래 무쳐 내불민 즈연히 뽕뽕허민 닻새되사 흐랑허영 목도 아프고 요새 굶으면 든 것 섞으면 상당히 옻이나 다름 없주게. 빨강헌게 잘만허든 색깔도 좋고 먹음직스럽주, 아주 큰 놈은.

⑤ 찌술 : 찌로 허영 누룩해가지고 맨든 거.

⑥ 감주 : 식게때 같은 때 뭐 돌코롬 훈 거.

⑦ 쉼다리 : 여름에 밥 쉬게 허영 맨든 거.

⑧ 즈배기 (혹즈배기, 조즈배기, ㄴ멸즈배기) : <즈배기는 뭘로 만듭니까?> 보리ㄴ루도 맨들고 밀ㄴ루로도 맨들고 못허는 것이 서. ㄴ물ㄴ루즈배기가 제일이 주, 옛날부터 ㄴ물ㄴ루즈배기가 먹으면 좀도 허고.

⑨ 칼국 : ㄴ물 영 뚝뚝 우동굴이 썰어 방 허는 거 뭐파?> 뚝뚝 그차 방 허는 거? 칼국말인가. ㄴ멸칼국.

⑩ 고시리 : 탁배기 맨드는 거.

⑪ 뺏다귀 : 고구마를 썰어서 말린 것.

⑫ 개역 : 보리 볶앙 가루 만들앙 개서 물타서 먹는 거.

Ⅲ. 雜 草 類

진줄/시에미쿨/구레가쿨/고랭이쿨/절난지/보쿨/쇠비눔/전각쿨/개비
눔/번네쿨/범불레쿨/독쿨/머마검질/고랏/개자리/난지/수레(드물레기)
/근숙/물룻/삼수에/물엿귀/검불레/갈레/몰리/익모/머만디/삼마/미
마/천성괘/스왕이(가시스왕이, 촌스왕이, 대스왕이)/정동줄/감비역/대우라
/배채기/가마귀웁줄/제한지/삼스새/물모작쿨/쇄터럭/항고지/생게쿨/
사스락쿨.

〈저 예, 보리검질은 주로 뭇들 이십니까?〉 밭에서 보리검질은 이제 진풀,
대우리, 시에미쿨, 구레기쿨. 〈옛날 조검질도 매낫수파? 조밭엔 뭐 이수
파?〉 어이구, 조밭에 검질, 수정셀 수 없주. 고랭이쿨, 절난지, 보쿨, 쇠비
눔, 전각쿨, 개비눔, 절난지도 윗봄은 절난지도 있고 〈물 막 하곡 허는디만 나
는 풀은 어수파?〉 번네쿨이랜 현 것이서. 〈아니 그냥 밭에도 영보른 물허끔
굴루꼭 현 디 파란 것이 준준허게 쪼리꼭 안헙니까?〉 번네쿨. 〈조검질 더 말해
봅써?〉 범불레쿨, 독쿨. 〈영 콩밭에 강 보른 나팔꽃 비슷현 것도 있지 않헙니
까?〉 예, 미마라고 미마검질 그거 상당히 번져가믄……. 가마귀웁줄이라고
〈건 어떤 검질 땀때?〉 이제 나주 여름 검질에 〈저 콩밭에 가보른 또예 길쭉길
쭉 현건디 뭇랜 굴은 될 건고? 새 비슷허기도 허고〉 거 절난이. 〈그런거 닳은 건
디〉 위로 퍼지는게 아니고 밑으로 퍼지는게 절난지고, 웃트레 올라가는 게 그
게 고랏이고, 새 닳은거 웃트레 올라가는거 고랏. 〈저, 봄에 보리검질땀 때 보
른 예, 이젠 냉이랜 허는디. 국도 꿔영 먹곡 허는디 뭇랜 헙니까?〉 〈저 예 쪼
끌락현건디 납작허고 쪼끌락현 거 마썸〉 개자리랜허는 건디. 〈칼로예, 영영 밑
으로 끈어당 먹는 거는?〉 난지. 난지가 있고 수예엔 현 게 있고. 〈수엔 어떤
거파?〉 드물레기. 봄에 나주 근숙 〈속종내기라 마썸?〉 속닭지 안허고 밭에
많이 있는 건디. 육지 사람들은 그걸 잘 우려서 떡 해먹는 모양이라. 밀ㄱ루,
무밀ㄱ루에 버무령, 또 물룻이 랜 현 것이 있고. 긴 여름검질, 삼수에랜 현 게 있
고, 물엿귀 랜 현 것이 있고, 〈이것도 여름검질 마썸?〉 예 〈여기 굴이 찹지 안
허영이네 현디 막 크게 나곡예〉 그것고라 고랭이쿨이 랜 현 건디막 매도 가뭇이
나도 안죽는 건디. 〈그런 것들 있지양, 매도 밭에 놔두지 안행 어디강 던져 부

는 거> 그런 종류가 쇠비름이랜 현 게, 상당히 목숨이 긴 건디. 고냉이쿨이랜 현 것이 상당히 담우이 놔도 한 보름 몰라사 죽을거라. 생전 죽지 안해. <논검질도 여름에 매야 될 거 아니파?> 논검질은 검불레랜 거 그거 뿐, 갈레, 물리 <물린 어떤 거파?> 나룩 종륜디 거 멍허게. 꼭 나룩 닳은 건디 고고리만 닳나주. <고리만 대우리 달른 거 아니파?> 똑 고리만 대우리 닳은 거주. 조에는 곶왓이랜 현 게. 조 닳은 거라도 비슷허여. <저 요즘 검질 보며는 길쭉길쭉허게 나긴 허는 건디게 어떤딘 깔린 거 보든 땅에서 뿌리가 무슨 약으로 쓰인멘도 허는디 무슨 터럭이랜도 허는디 무슨거파?> <여름에 나오는 거> 약으로 쓰이는 거는 익모라고, 밭에 검질에도 나주게. 부인들 약제로 쓰주. <저, 막 타레 다니는 거 있지 았으파? 밭으멍, 지병이영 곱이. 우에 손가락 닳게 이파리가 나오고 밑에 동그락현 게 있고, 이파리 세개. 이젠 잘 안보여도 과수원 같은 디 짚이 과당 보든 뚱그락뚱그락현 거 나오지 았습니까? 이파리가 가마귀손가락 닳게 동그락허고?> 머만디, 뿌리가 아니고 콩방울 모양으로 동글동글현 건디, 불휘 약쓰 곱허는 건디. 삼마랜 현 거. 농사 짓는 밭에 나는 거고. 춤 방울 달른거 삼마랜 현 거주. 잘못 곶아싱게 머마랜 현 건 줄만 뻗는거고. 여름검질엔 월리랜 거 시 이서. 위시랜 현다만 그 불휘가 꺾쪽 배끼든 코송행 탄약방에도 들어가는 건디. 그게 땅속에 들든 그 든 밭에 곤란드는 건디 약방에 드는 거. <출밭에 잘 나는 거 있잖우파? 막 키크고 허는 거> 출왓엔 천성피. 약으로 안들고 검질. 부쩍부쩍 올라오는 거. <가시이신 거 있잖우파?> 가시소왕이. <그건 소분허래 다닐 때든 귀참고예?> 가시소왕이도 있고, 촌소왕이도 있고. 촌소왕이 불휘는 약제로도 들어가곡. <밭에 나는 것이 뭐파?> 대소왕이가 밭디 잘 나주. <또 저 불리 만드는 것도 있잖우파?> 그건 출왓디 잘 나는 건디 정동줄이라고. 건 이 근처에 았고 웃드레 가사 줄 뻗영 가는 거 바꾸니도 맨들고. <검질 감비역은 어십니까?> 감비역이엔 현 건 보리에서 나오는 건디, 문닥허게 요새 감비역 안크난 허주 감비역 썬엿주. <그거영 대우리영 틀립니까?> 대우리호고 감비역호고 톱나주. 감비역이엔 현 건 보리모양으로 되어 오다가 고고리가든 검영 허게 되는 거. 대우리는 당채 여물부터 틀려 부리고, 감비역은 보리중에서 현 거고. <여기 질에 가든 뭐 있잖우파? 불꺼미 먹는 거 토끼풀도 허고 잎도 넓적 허고 어린 아이들 꿔를락허영 장난허는 거 마썸, 판디 가민 배치기랜 허는디> 여기서도 배채기랜 허주. <가마기줄?> 가마귀웁줄. 보통 그냥 농사 짓는 밭디

나는 거. <절난지, 제한지 어수파?> 절난지, 제한지나 곶은 거주. <삼새 새 허는 그런 막 옷에 달라 붙는 것도 막 여러가지 아니우파?> 삼새새엔 현 건 혼가지고, 옷에 막 달라 붙으는 풀이 여러가지주마. 덤불래쿨이라고 요새 약제로도 만든 덴 막 사간게. 똑 바늘 닳은 것도 영 병뎡이정 붙으는 거. 여기서는 물모작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거 영 슬랑슬랑하는 거. 막 붙엉 허는 건디. 물모작쿨 닳은 건디. 열매가 아니고 아마 가시주. <쉐터럭이엔 현 검질 이수파?> 검질춤에 가! 잘 나지 앓허주게. 나는 밭은 나고 잘 안나. <생긴 건 어떻 생겨수파?> 생긴 거 배치곶어. <절난지영 아주 다르고양.> 예, 쉼터럭이엔 현 건 여름풀이라. <항고지는 논에 나는 풀이라예?> 논에 나는 거 논풀. <생계쿨?> 생계쿨은 내창가에 나는 거주. <사스락쿨은?> 여름검질이고 잎파리는 좁고.

Ⅳ. 漁 業

Ⅳ-1. 潛女

Ⅳ-1-1. 道具

- ① 두렁박, 태왁 : 물질허래 갈 때 가정 가는 거.
- ② 망태기(망실이)
 <그물 달린 건?> 망실이엔 허주.
- ③ 안경(물안경)
- ④ 고무모자(以前에는 수건)
- ⑤ 구덕
- ⑥ 고무옷
- ⑦ 물적삼(속옷, 소중이) : 물적삼은 우에 입는 거.
- ⑧ 소살(작살)
- ⑨ 비창 : 전복따는 거
- ⑩ 공쟁이(거넷, 갈퀴리) : 문어잡는 도구.
- ⑪ 골갱이.

Ⅳ-1-2. 숨비소리 : 물속에 갔다오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서, 물 밑에

갔다오민 너무 ㄹ쁘주게. 자동적으로 여기 나올 때는 그 소리가 잘 어려와. 바깥에 나올 때엔 물에간 땀 갔다오민 자동적으로 그 소리가 나와 그 소리 해야만이 물에 갈 수도 있고.

IV-1-3. 채취물명

- ① 소라
- ② 전복
- ③ 오분재기
- ④ 문어
- ⑤ 해삼(미)
- ⑥ 소라(구재기)
- ⑦ 전복
- ⑧ 문어(물꾸럭)
- ⑨ 오분자기(바릇)
- ⑩ 귀
- ⑪ 숨
- ⑫ 머묵

IV-1-4. 潛女等級

- ① 불락좁네 : 처음 물질을 배우는 해녀.
- ② 중좁네(중군)
- ③ 큰좁네(상군, 상좁네)

IV-2. 魚名

수애기(돌고래)/문어/도미(갯돔, 참돔, 검정돔, 돌돔, 옥돔, 가문돔)/어랭이/우럭/다금바리/자리/존다니/조기/막쟁이(상어 : 곧두리상어, 죽상어, 톱주리상어, 성이상어, 우금상어, 모도리(큰상어))/가시돔바리(토신제에 사용)/저울도리/비군도리/비깨/술난이(바르피기)/따치/쩍주리/늘치(새치)/아까방아/숭어/멍청이(시비가스)/밴자리/더깨(홍어)/불락/갈치/물망데기/소치/광어/복쟁이/오징어(이까)/등내비/고등어/낙지/맹마구리/고래(더더미)/오대장이/되엄이(용왕할망딸 : 어린아이 모습과 비슷한 것으로, 술, 소라 등을 먹

南濟州郡 安徳面 大坪里

이고 보내면 재수가 좋다고 함)／북바리／물장군／물방석(불가사리)／맥시／다금바리／우럭(검태우럭, 벨우럭, 감장우럭, 졸우럭, 설우럭)／복쟁이(춤복쟁이, 심방복쟁이, 똥복쟁이)／물망데기／북바리(우렁쟁이)／고맹이(보들레기)

Ⅳ-3. 海藻類

김／파래／톳／몸(물망)／우미／무남(산호)／청각(춤청각, 조청각, 개청각, 물청각)／도박(구두리)／잘태／미역／넙패／가시리／후두리／물미잘

Ⅳ-4. 潮水名

陰1日 일곱 물 9日 서 물

2日 여덟 물 10日 너 물

3日 아홉 물 11日 다섯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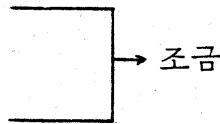
4日 열 물 12日 아끈조기

5日 열흔 물 13日 한조기

6日 열두 물(막물) 14日 부날

7日 혼 물 15日 여섯 물

8日 두 물 16日 일곱 물



* 초하루: 일곱물, 만조(춤드리), 간조(즈싸기)／보름(여섯물, 작은달에는 다섯물)

Ⅳ-5. 風名

하늬보름, 샛보름, 마포름, 갈보름.

* 놀: 태풍.

Ⅳ-6. 其他

메옹이(쇠닥살)／마타실／문데기(문더데기, 문다스레기, 남자보멸)／고메기(여자보멸)／수두리／믹보멸／배채기／굴(납작굴, 쪼작굴)／오갈／뱀알／앵이／기(강

濟州島部落誌(I)

이) / 게 (꽃깅이, 놀개, 꽃개, 돌깅이) / 새우 (위) / 가막부리 / 기드레기 / 물이슬
 굴멍이 / 물 / 조개 / 멍자 (끼멍지, 참멍지) / 상통이 (문어머리) / 가마귀보말 (말).

통발 : 물구럭 잡는 도구

죽망 : 그물, 유죽망, 덤장

보제기 (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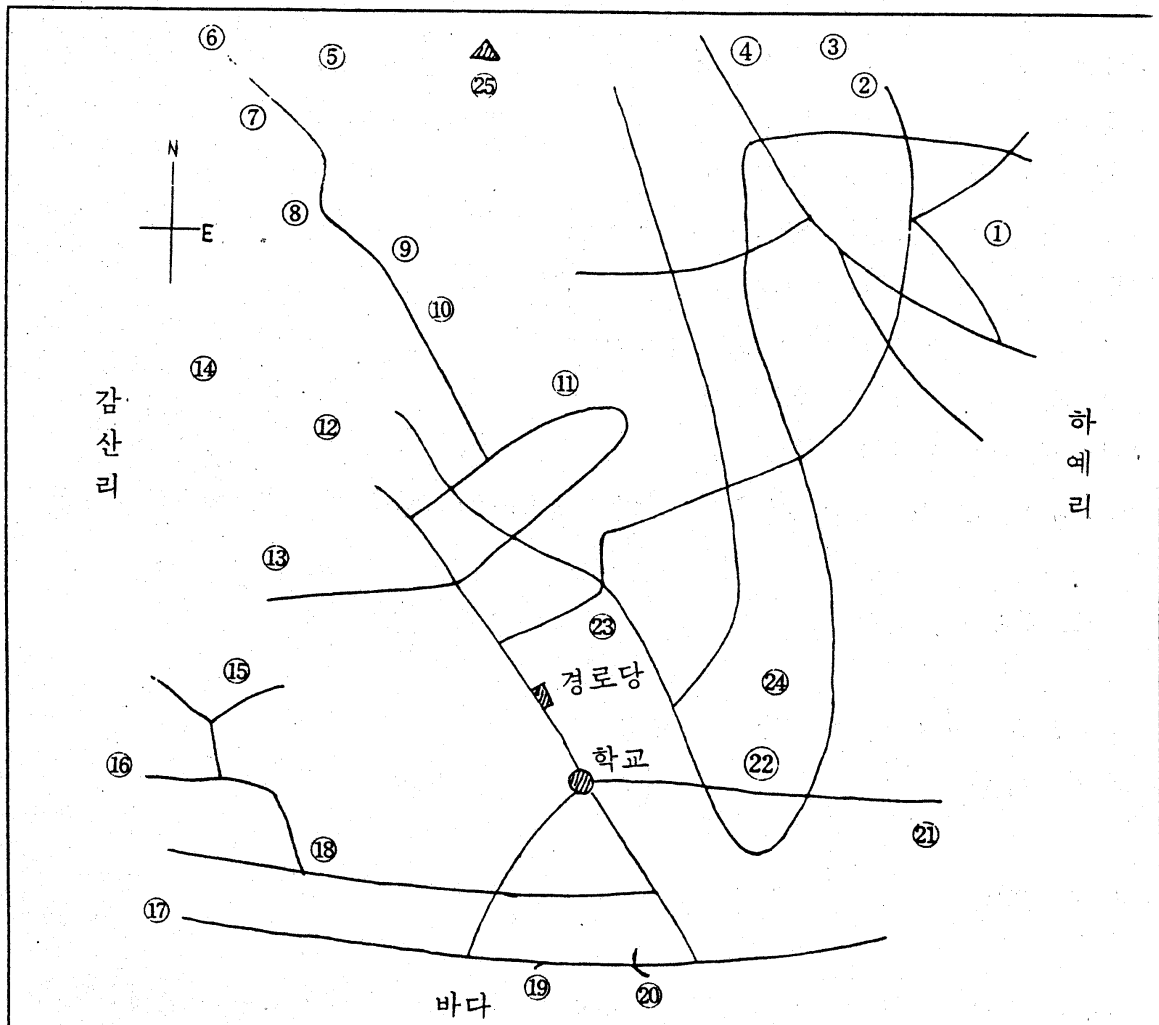
태 : 제주 특유의 통나무를 묶어서 만든 배.

사울대 : 샷대

이물 (ㄱ지) : 배의 앞부분

고물 : 배의 뒷부분

한장 : 배의 한가운데 부분



(다음면 V-1 地名 참조)

V. 地名 및 海岸名

V-1. 地名

①새랭이 ②미륵굴 ③애기엿게돌 ④방애울동산 ⑤물오름 ⑥흔들믄르 ⑦진믄루 ⑧웨울목 : 唐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소를 물고 가던 길 ⑨짐시털 ⑩송청굴 ⑪햇믄루왓 ⑫사도형 ⑬개개비동산(평몬동산) ⑭개남믄루 ⑮당밭 ⑯석굴 ⑰덤배왓 ⑱물왓 ⑳소귀왓 ㉑군산 : 세월이 흐르면서 瑞山, 仇山, 屈山, 群山, 軍山으로 이름이 변함.

호미덕 : 군산은 범이 누운 形像인데 그 꼬리부분을 “호미덕”이라 함.

부어석(미륵동) : 미륵이 출처할 곳이라고 전해 내려온다는 곳.

햇믄루 / 이뱅방집터 / 정승나리끄정이 / 바게끄정이 / 조선드리끄정 / 배캐왓 / 흑순이 / 안막은굴 / 진믄루 / 한밭 / 그정밭 / 큰새왓 / 월라봉 / 각시왓 / 선비돌
물질 : 국세곡마를 실어 가던 길.

V-2. 海岸名

⑯ 당케 : 조공을 바치러 가던 포구

⑰ 당굴 ⑱ 오직계 ㉑대국 ㉒기굴(당할망터)

박소 / 앞벌랭이 / 홀애미덕 / 산여 / 물뚝여 / 이방여 / 굴적돌 / 생숫바위 / 막은굴 / 통턴여 / 새포롬코지 / 동갯여 / 이방여흙 / 가운데도랭이 / 섯도랭이 / 섯텃여 / 물담은여 / 굴적여통 / 남바위 / 감태여 / 앞여 / 새여 / 먹돌야개 / 태담은돌 / 황개창 : 화순과 경계지역.

VI. 其 他

① 그릇 : 겹그릇, 멧그릇, 펜틀, 쟁반, 접시, 보시, 종지.

② 정당벌립 : 정동으로 만든 것.

③ 털벌립 : 집새기, 즉 새로 만든 것.

- ④ 병것
- ⑤ 돛걸음착 : 쇠로 해서 걸름 시켜갈 때 사용하는 거. 짝으로 만듬.
- ⑥ 동고량(도솔기) : 혼자 먹을 밥 쌍 땡기는 거.
- ⑦ 차롱(채롱)
- ⑧ 물뱅이 : 연자방아
- ⑨ 줄도래기 : 큰집 일젠 하민 새 꼬는 거
- ⑩ 호롱이
- ⑪ 중실이 : 순부기 거뒤다그네 가마귀 소로기로부터 병아리 보호시키는 거.
- ⑫ 푸슴 : 쇠코 꺾는 거.
- ⑬ 쉼석 : 소 묶는 줄
- ⑭ 일청중 : 검은 털 흰 털 섞어진 물
 물이가래 : 새까망 혼 놈
 삼적대 : 빨간 놈
 스월래 : 얼룩배긴디 흰 띠도 해지고 노란 띠도 해지고.
 오유네
- ⑮ 므시 : 짐승, 가축
- ⑯ 번하다 : 한가지 농사가 끝나고 다음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밭을 갈아 두는 것.
- ⑰ 항(항아리) - 암통게 : 주둥이가 크고 바룩하게 바라진 것.
 - 수통게 : 수투롬하게 올라간 것.
- ⑱ 소로기 : 소리개
- ⑲ 다가리 : 머리
- ⑳ 식게 : 제사
- ㉑ 도끄룻 : 식게때나 쓰는 그룻
- ㉒ 하대 : 무당.
- ㉓ 부바리(비바리, 負髮) : 머릴 올리지 않았다. 터럭을 머리에 졌다.
 · 非髮理(非理髮) : 머리를 아직 건드리지 아니한 여자.
- ㉔ 난역 : 영장 하여강 물어뵈이네 따시 중석을 먹이주게. 그때 등절비를 먹이는거
- ㉕ 작지 ㉖ 속 : 쭈

南濟州郡 安德面 大坪里

- ②7 용시 : 농사
- ②8 작돌이(약돌이) : 그물 곶이 맨들앙 점심그릇 곶은 거 낭 이영 대기는 거.
- ②9 밀망탕이 : 찹으로 만듦
- ③0 구덕 : 바구니
- ③1 맏덕 : 절구 방앳귀 : 절구공.
- ③2 우금 : 밥자 낭자 : 국자.
- ③3 저슬기 : 젖는 거
- ③4 젓통 : 수저 놓는 것
- ③5 병에 : 흙덩이
- ③6 농부완이 : 농부
- ③7 떡본 : 떡의 모양과 무늬를 만드는 것.
- ③8 빗 : 떡 자르는 것.
- ③9 허벅
- ④0 카름 : 부락
- ④1 송년 : 흥년
- ④2 고망 : 구멍
- ④3 등멩이 : 뜰
- ④4 돔배 : 도마
- ④5 바쿠 : 바퀴
- ④6 고고리 : 이삭

提報者

이기방(男, 75세), 강영권(男, 70세), 강성범(男, 53세)
이규전(男, 57세), 이을호(男, 81세), 임찬옥(女, 64세)
강금선(女, 72세), 정춘지(女, 48세), 강선옥(女, 65세)

民 謠

目 次

I. 勞動謠

1. 땃들노래
2. 방아노래
3. 밭 밟는 노래
4. 꼴 베는 노래
5. 김 매는 노래
6. 해녀 노래

II. 儀式謠

1. 달구노래

III. 童謠

1. 遊戲曲

- (1) 공놀이할 때
- (2) 고무줄놀이할 때
- (3) 줄놀이할 때
- (4) 손놀이할 때

2. 語戲謠

3. 자장가

南濟州郡 安德面 大坪里 조사에서는 짧은 調査期間이었지만, 勞動謠와 童謠에 力點을 두어 採錄하였다.

勞動謠는 특수한 종류에 국한하지 않고 採錄하였으며, 너무 단조롭거나 辭說 자체가 자료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경우는 제외했다.

童謠는 대평분교 학생들의 도움에 따라 유희요 등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는데 意義를 두었다. 유희요는, 근래 어린이들 사이에서 새로이 유행되는 유희에 따른 諷刺的 童謠다.

現場論的 調査方法에 따라 口演狀況, 제보자에 대한 해설이 明記되어야 하겠지만, 지면 관계상 이를 생략하고 사실만 소개한다.

I. 勞 動 謠

1. 맏돌노래

1-1.

이여이여	이여이여
이여동하라	
ㄹ렌아니	지남석ㄹ레
이여동하라	이여동하라
ㄹ렌아니	지남석ㄹ레로구나
이여동하라	

우리어멍	날루사나난에
요ㄹ레꼴앙	즈냐ㅎ랭ㅎ곡
이여이여	이여동하라
	(박춘화, 여·66)

1-2.

이여이여	이여동하라
간장석듯	술석엄시민
어디신골	이시리야
이여이여	이여동하라

울멍밥을	손으로먹엉
무정ㅎ난	성아니지영
이여이여	이여동하라

어멍이사	날울랭ㅎ리
나전쌍이	날울럼서라

가랭호영	보내여두언
갈만호난	지드럼서라

가난호곡	서난호집원
병은드난	더서난호다
강남서도	놀아온새야
일본서도	놀아온새야
청대앞의	촌이실지연
놀개젓언	못놀아온다
이여이여	이여동호라

(장순자, 여·65)

2. 방아노래

이여이여	이여동호라
어멍이사	날울랭호라
나전싱이	날울럼서라

가시오름	강당장집이
식쿨방애	새글러온다
이여이여	이여동호라
전싱곳은	이내몸가난
다섯쿨도	새맞아온다
이여이여	이여동호라

간간놀젠	눔의칩드난
어디간간	놀암서니
이여이여	이여동호라

소린나곡 살을메웃건
이여이여 이여동호라

설황서도 아니나죽언
멩도쫓른 무덤이더라
이여이여 이여동호라

가난호고 서난호집은
병은드난 더서난호다
더설음은 더설음호다

스랑호건 벗이엥말라
돌아서민 잡을말호다
이여이여 이여동호라

간간놀젠 놈의첩드난
어디간간 놀암서냐
소나무벽틈과 놈의첩들민
소린나도 살을메웃나
이여이여 이여동호라

독은울면 날이나샌다
내사운들 어느날새랴
이여이여 이여동호라

강남독은 소나무앗엉
조선국도 지울렘더라
이여이여 이여동호라

설황서도 아니나죽엉

멩도쫌른 무덤이더라
 이여이여 이여동하라
 이여이여 이여동하라
 (장순자, 여·65)

3. 발 밟는 노래

3-1.

이러이러 이러이러 어어어어 어러러
 요눔오 몰들아 빨리 걸어보라 어어어어
 이러이러 이러이러 어러러러
 즈근즈근 뽀아브라 어러러러 어어어어
 재게 빨리 불령나고가라 어러러러러 어허어허어어어
 잘볼리린 씨도 잘살꼭 못볼리린 못산다 어러러러러 어허어어허어어어
 (정태숙, 여·64)

3-2.

어러러러 어러러어어어러러어러 하
 요똥생이 저똥생이덜 어어어어 허어어러러어어러어 하
 덜렁덜렁 걸으라 어어어어 허어어러러어어러어 하
 어러러러 어러러어어어러러어러 하
 제석할망 제석하르방 어어어어 허어어러러어어러어 하
 요조팻 불려그네 에에에에 에이에에에에에이야 하
 요좁씨 지와그네 에에에에 에이에에에에에이야 하
 어러러러 어러러어어어러러어러 하
 구릿대랑 어랑조 내웁서 낭이랑 구릿대 내웁서 올매랑 쉼으름시깁서
 어러어러러러러러 어러러어러어 하
 에야로구나 디야로구나 어어어어 허어어러러어어러어
 어기야 두기야 사디로구나 어어어어 어허어러러러어 오로로로로로 하
 먼뒗사름 보기 좋게 요조팻 설렁설렁 걸어보라 어러러러 어러러어러러어러 하

저딧사름 듣기 좋게 요사디 부르멍 어러러러 어러러어어어러러러려 하
덜렁덜렁덜 요몽생이 걸어라걸어라 어어어어 허어어려려어려려
어기야 사디로구나 어어어어 허어어려려어려려
어러러러 어러러어어어러러러려 하.

(장순자, 여 · 65)

3-3.

어어어어 어허어허어어 오로로로로로
네발이 둥둥하게 걸어보라
어어어어 어허어허어어 오로로로로로
어드레 요레저레 가지말앙 츠레로 걸으라
어어어어 어허어허어어 오로로로로로
촉나라기 배아라기 나지말앙 걸어보라
어어어어 어허어허어어 오로로로로로
우리 아바님 소리가 저바당에 부엉새는 부엉부엉 흥전마는
오르오르오르 어허어허어어 오로로로로로
네발이 둥둥하게 걸어보라
어어어어 어허어허어어 오로로로로로
요빳을 불리민 둥글둥글 불려야 조도종곡 둥실둥실 고고리도 흠어간다
어어어어 어허어허어어 오로로로로로

(박춘화, 여 · 66)

4. 꿀 베는 노래

4-1.

어어어어 어허어허 어기야 도오오오여 요출도 비여보자
청출빳디 놀궂는 소리가 어어어어 어허어허 어기야 사디로구나
스르릉스르릉 비여간다 어어어어 어허어허 어기요 흥애로구나
요출요출 비여나보자 어어어어 어허어허 어기요 흥애로구나
청출빳디 놀궂는 소리가 어어어어 어허어허 어기요 상사디야 사디로구나

어어어어 어허어허 어거요 상사디야

(박춘화, 여·66)

4-2.

이때는 어느때가 돌아오라신고 어어어어 어허허어헤에에야
 어느동안 동동팔월 돌아오라 어어어어 어허어허헤에에야
 요출저출 청출बाट 놀궂는 소리 어어어어 어허허어헤에에야
 서르릉서르릉 낮이논다
 어야디야 어어어어 어허허어야 사디로구나 에헤헤야아하하
 때는 어느뻘고 어어어어 어허허어야
 동동팔월 어장칠월 돌아오난 요출비는구나 어어어어 어허허어
 어야디야 놀레로구나

(장순자, 여·65)

5. 김 매는 노래

5-1.

어기여랑	사디로구나
검질깃곡	골너른बाट
어기여랑	사디로구나
요검질매영	놔두정
조랑왕대좁씨	나게나홉시
어기여랑	상사디야

사디불령	앞멍에가져
어기여랑	사디로구나
앞멍에랑	들어나오라
뒷멍에랑	나고나가라
어기여랑	상사디야

(박춘화, 여·66)

5-2.

어기여랑	상사디야
앞명에랑	들어나오소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선들선들	동남풍온다
적군님네	흔저들헛라
어서바빠	메고가게
일락서산	해도다저물고
월출동녀	달돌아쫓나
앞명에는	쌀쌀도흐는구나

(이쁜하, 여·65)

6. 해녀노래

6-1.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우리어멍	날날적의
어떤날에	나를나난
(청취불능)	
아마질만	헛시라고
나를난가 헤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고물에는	고사공아
이물에는	이사공아
허릿띠밋되	자중 햏야
물때점점	늦어나가네 헤
이구라산도	잘올라간다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濟州島部落誌(Ⅰ)

그만지영	얼마나가리
이여사	이여사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요벤드레	꿍어지민
부산항구	지름줄이
어딜가고	없을말고
이내상착	부러지민
부산항구	곶은남의
어딜가고	없을말고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이여사
이여사나	

(박춘화, 여·66)

6-2.

이여사나	이여사나
산천초목	속입난되
구경가기	참종구나
이여사	이여도사

어떤사름	팔제종앙
고대광실	노픈집의
남전북답	쌍인들에
영웅호걸	호련마는
우리팔제	똥팔제라
요런생활	호련말고
이여사	이여도사

간다온다	호련마는
------	------

요바당의 오라그네
지폰야폰 물속은알아도
사람속은 몰라지네
이여도사 이여도사

(정태숙, 여·64)

6-3.

A. 이여사 이여사
이여도사나

B. 저어라 저어라

A. 저산천에 푸십새는
해년마다 갖다왔다

B. 이여도사나

A. 흥련마는 우리ㄴ똥

B. 이여사

A. 설운인생

B. 이여도사나

A. 한번아차

B. 이여사

A. 실수땀면

B. 저어라 저어라

A. 다시오기

B. 이여도사나

A. 만무려라

B. 이여도사나

A. 이여사 이여사

B. 이여도사나

A. 간다간다 나는간다
너를두고 나는간다

B. 이여도사나

- A. 내가가면
- B. 이여사
- A. 아주간다
- B. 이여도사
- A. 아주간들
- B. 이여사사
- A. 잇일소냐
- B. 이여도사나
- A. 이여사
- B. 이여사
- A. 이여사
- B. 이여도사나
- A. 산천초목 속입난되
구경가기 참종구나
- B. 저어라 저어라
- A. 이여사
- B. 이여도사나
- A. 이여사
- B. 이여도사

(A : 정태숙, 여 · 64, B : 이형탁, 남 · 60)

6-4.

- | | |
|---------|----------|
| A. 이여사나 | B. 이여사나 |
| 이여사나 | 이여사나 |
| 이여도사나 | 이여도사나 |
| A. 이웃어른 | B. 이여도사나 |
| 어딜가지 | 이여도사나 |
| 호엿건마는 | 이여사 |
| 대마도로 | 이여사 |
| 한골로 | 이여도사나 |

- | | |
|---------|---------|
| 들어가게 | 이여도사 |
| 물이싸민 | 이여사 |
| (칭취불능) | 이여사 |
| 돌아오곡 | 이여사 |
| 물이들민 | 이여사 |
| A. 용왕에서 | B. 이여사 |
| 놀아오던 | 이여사 |
| 선왕님아 | 이여사 |
| 요왕님아 | 이여도사 |
| 앞발로랑 | 허우치곡 |
| 허우치멍 | 뒷발로랑 |
| 뒷발로망 | 오동치멍 |
| 체우치멍 | 이여사나 |
| 어서가게 | 이여사나 |
| 어서가게 | 이여사 |
| A. 잣나무로 | B. 이여사나 |
| 지은배랑 | 이여사나 |
| 솔솔가곡 | 이여사 |
| 가시나무 | 이여사나 |
| 진도목으로 | 이여도사 |
| 철철이사 | 이여도사 |
| 가는구나 | 이여사 |
| 영급좋고 | 이여도사나 |
| 수덕좋은 | 이여도사나 |
| 선왕님아 | 이여도사나 |
| A. 앞발로랑 | B. 허우치멍 |
| 허우치멍 | 뒷발로랑 |
| 뒷발로랑 | 요동치멍 |
| 체우치멍 | 이여사 |
| 어서가게 | 이여사 |

- | | |
|---------|-----------|
| 어서나가게 | 저어라저어라 |
| 아니지민 | 아니나지민 |
| 배올라가지 | 배올라가게 |
| 아니 혼다 | 어기야디야 |
| 기신을놔당 | 저어라저어라 |
| A. 뭇을허려 | B. 저어라저어라 |
| 배또롱을 | 하늘을베와 |
| 하늘을베우민 | 어기야디야 |
| 어기야저어라 | 어기야저어라 |
| 잘올라간다 | 저어라저어라 |

(A : 이순열, 여 · 60, B : 박춘화, 여 · 66)

Ⅱ. 儀 式 謠

1. 달구노래

- | | |
|--------------------|------------|
| A. <u>으호어</u> 상사디야 | B. 에헤야 달구야 |
| 으호뒤야오 달구로구나 | B. 에헤야 달구야 |
| A. 세상천지 만물중에 | B. 에헤야 달구야 |
| A. 사람바뀌 더있을까 | B. 에헤야 달구야 |
| A. 호오오 달구호면 | B. 에헤야 달구야 |
| A. 우리인생 나실적의 | B. 에헤야 달구야 |
| A. 어느누구 달구나 | B. 에헤야 달구야 |
| A. 달구호민 노피짚읍서 | B. 에헤야 달구야 |
| A. 토박이 석괘뒀게 | B. 에헤야 달구야 |
| A. 어허 찢괘이뉘지라도 | B. 에헤야 달구야 |
| A. 이내몸도 죽어지면 | B. 에헤야 달구야 |
| A. 요모양 요꼴일세 | B. 에헤야 달구야 |

A. 우리어멍 날날적의
A. 누구덕에 낳을거나
A. 석가여래 공덕으로
A. 아버지전 빼를빌고
A. 어머니전 살을빌며
A. 제석님전 복을빌고
A. 하나님전 멩을빌어
A. 우리도 젊었을때
A. 한두살의 철을몰라
A. 부모은공 못다가파
A. 어이없고 애달구나
A. 우리인생 그림자만
A. 펡토소리 흥여봐도
A. 영혼이 대답없고
A. 불쌍호신 영혼님네
A. 극락으로 올라가서
A. 나비몸으로 환생호민
A. 백나비로 환생홀까
A. 흑나비로 환생홀까
A. 청나비로 환생홀까
A. 황나비로 환생홀까
A. 백나비로 환생홀까
A. 이제내가 돌아가도
A. 존손창성 시켜주고
A. 일가친척 화목시켜
A. 부귀영화 시켜주마
A. 내가죽어 섭섭말고
A. 초제옥 지내놓고
A. 사무절곡 지어가멍
A. 일년너머 속이지네

[illegible]

A. 삼년만에 대상하고
A. 대상후 백일만에
A. 백일후에 담제로다
A. 다시다음 제사 혼다
A. 이소리로 마칩니다

B. 에헤야 달구야
B. 에헤야 달구야
B. 에헤야 달구야
B. 에헤야 달구야
B. 에헤야 달구야

(양태회, 남·56)

Ⅲ. 童 謠

1. 遊戲謠

(1) 공놀이할 때

시작하면 1학년 1학년이 아니다
원 투 쓰리

시작하면 2학년 2학년이 아니다
원 투 쓰리

시작하면 3학년 3학년이 아니다
원 투 쓰리

시작하면 4학년 4학년이 아니다
원 투 쓰리

시작하면 5학년 5학년이 아니다
원 투 쓰리

시작하면 6학년 6학년이 아니다
원 투 쓰리

시작하면 7학년 7학년이 아니다
원 투 쓰리

시작하면 8학년 8학년이 아니다
원 투 쓰리

시작하면 9학년 9학년이 아니다
원 투 쓰리

시작하면 10학년 10학년이 아니다
원 투 쓰리

시작하면 1학년 1학년이 아니다
2학년이 아니다 3학년이 아니다
4학년이 아니다 5학년이 아니다
6학년이 아니다 7학년이 아니다
8학년이 아니다 9학년이 아니다
10학년이 아니다 원 투 쓰리

(우윤정, 여·6년 외 11명)

(2) 고무줄놀이할 때

(2)-1

중학교에 다니는 우리 언니는
모자에 반짝이는 중학교 뺏지
매일아침 그걸보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중학교에 다닌다고 뽐내지 말라 헤이

(우윤정, 여·6년외 11명)

(2)-2

인절미가 만약에 시집간다면
눈가루와 떡가루로 화장을 하고
꽃같은 쟁반위에 앉아있다가
들어갑니다 예식장으로(입속으로, 신랑방으로)

(우윤정, 여·6년외 11명)

(2)-3.

시갈시갈 바퀴시갈

濟州島部落誌(Ⅰ)

시갈시갈 연탄가스시갈
한발 뭍고 두발 뭍고
빙글빙글 돌아라
잘도 넘는다

(우윤정, 여·6년외 11명)

(2)-4.

장난감 기차가 칙칙 달려간다
파자와 사탕을 싣고서
엄마 방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
갖다주러 갑니다

(우윤정, 여·6년외 11명)

(2)-5.

정이월 따라서 삼월이라네
강남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와
이땅에도 또다시 새 봄이 온다네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나 가세

(우윤정, 여·6년외 11명)

(2)-6.

딱따구리 구리 만만세
마이너스깨끼가 윤도차
윤도 윤도 윤도차이나
차이나 차이나 윤도차이나

(우윤정, 여·6년외 11명)

(2)-7.

갈쟁기 흐랑망탕 엄마본을 따라서

밭에 있는 곡식이 누렇게 익고
엄마는 시장가에 울고 있단다

(우윤정, 여·6년외 11명)

(2)-8.

앞마당 앞에서 어여쁜 병아리
잠자고 나서는 고추잠자리
잠자리가 날아와 김치먹고
김치먹고 하하 고추장먹고 하하

(우윤정, 여·6년외 11명)

(2)-9.

순아 순아 옥순아 너의 엄마 어디 갔니
우리 엄마 배타고 압록강에 놀러가셨다

(우윤정, 여·6년외 11명)

(2)-10.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로 두드리면 무엇이 나올까
금나와라 와라 똑딱
은나와라 와라 똑딱

(우윤정, 여·6년외 11명)

(3) 줄놀이할 때

(3)-1.

빙글빙글 달려라 어서줄을 넘으라
한번뛰면 이마에 꽃봉오리 비치지
얼치얼치 틀렸다 이번에는 내차례다

(우윤정, 여·6년외 11명)

濟州島部落誌(I)

(3)-2.

- | | |
|--------|-------|
| A. 어머니 | B. 무사 |
| 학교 | 가라 |
| A. 선생님 | B. 무사 |
| 몇점 | 빵점 |
| A. 어머니 | B. 무사 |
| 빵점 | 공부 할라 |
| A. 선생님 | B. 무사 |
| 몇점 | 백점 |
| A. 어머니 | B. 무사 |
| 백점 | 놀라 |

(우윤정, 여·6년의 11명)

(3)-3.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잘 가거라

(우윤정, 여·6년의 11명)

(3)-4.

똑똑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손님이면 신발 벗고 모자 벗고 양말 벗고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윤정, 여·6년의 11명)

(4) 손놀이할 때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서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드래요
샤파샤파 하이샤파 얼마나 울었을까요
샤파샤파 하이샤파 얼마나 울었을까요
천구백팔십팔년 올림픽

(우윤정, 여·6년의 11명)

2. 語戲謠

2-1.

원숭이	똥구멍은	시빨경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건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건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건	하늘
하늘은		푸르다
푸른	건	바다
바다는		짜다
짠	건	소금
소금은		희다
흰	건	토끼

濟州島部落誌(I)

토끼는	똥다
뛰는 건	공
공은	둥글다
둥근 건	지구

(우윤정, 여·6년외 11명)

2-2.

여우야 여우야 똥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세수한다
 멋장이
 밥먹는다
 무슨 반찬에
 개구리 반찬에
 살았나 죽었나

(우윤정, 여·6년외 11명)

3. 자장가

3-1.

자랑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아기	재와도라
느네아기	재와주마
아니아니	재와주당
질긴질긴	한총베로
지픈지픈	천지소에
드리כות	내כות

헛다그네	네껴불민
가막새도	튼어먹나
소로기도	차간다
윙이자랑	자랑자랑

동네방상	화목동아
동네존장	원앙동아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은을주민	너를살까
금을주민	너를살까
천왕불도	할망아기
물웨크듯	키와줍서
저바당에	미둥글듯
키와줍서	할망아기
물항에	드리청
키와줍서	
윙이자랑	자랑자랑

아기가시민	은곽에가리야
아기가시민	넛곽에가리야
자랑자랑	윙이자랑
자랑자랑	윙이자랑
흔저넝자라	흔저미녕 좇고 ㅎ게
윙이자랑	윙이자랑

(박춘화, 여·66)

3-2.

왕이자랑	왕이자랑
어지시던	할망아기
누영자라	아니자민
아니웁다	천왕불도
할망아기	인왕불도
할망아기	어진이야
이야기랑	할마님이
홀일 마치	그늘로
키와줍서	

밤이나근	어미품에
기억들곡	은단팡에
서단막에	빠져그네
젓가슴을	물어노킹
붉는줄	모르게
재와줍서	

낮으랑은	이야기랑
발방디도	시켜줍서
손방디도	시켜줍서
아희던데	조메뜨멍
시켜그네	이야기덜
천왕불도	할마님이
그늘놉서	인왕불도
할마님이	그늘로
(청취불능)	천하멩산
멩월로	지하멩산
너른산에	복을줍서

장꼴라비	스만목숨
시켜그네	천년동개
만년동개	시켜줍서
할마님이	모두못 홀일이
잇읍네까	열손바닥
빌어원정	꼭꼭사나오면
키와줍서	할마님아

(강순표, 여 · 72)

3-3.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애기	재와도라
느네아기	재와주민
질긴질긴	한총베로
육은아기	(칭취불능)
디리청내청	하다보민
죽어시민	건져다그네
앞집뒷집	던져내버리민
앞집개도	뜯어먹나
뒷집개도	뜯어먹나
가막새도	뜯어먹나
먹다먹다	남은걸랑
들러당	남방애왕
독독뺏앙	(칭취불능)
저노픈군산	꼭대기에
올라강	어푸호구
불림질 호민	만재미영
(칭취불능)	구렁이영
뱀이영	먹나

(강의, 여 · 87)

說 話

目 次

- | | |
|--------------|------------------|
| 1. 공주와 결혼한 개 | 6. 효자의 신선바둑 구경 |
| 2. 개와 닭의 원한 | 7. 외눈박이 산터의 신동 |
| 3. 선녀와 나뭇꾼 | 8. 이천양짜리 名占 |
| 4. 상정승 이야기 | 9. 저승할망 |
| 5. 쇠북 효자 이야기 | 10. 중국문장과 어부의 和答 |

1. 공주와 결혼한 개

옛말로 들었는디 우리 조선 왕, 왕이 혼번은 왕 사는 궁실에 도적놈이 들어 도적놈이 드는디, 어떤 도적놈이 들었냐 허며는, 백새 탄 도적놈이 장검 들고 들어오라가지고 이 궁 안을 횡횡 돌아다닌단 말이며. ‘하. 이거 춤, 도적놈이 궁실에 들어오니까니 이거 어떻게든 좋우코?’ 해서 나라의 근심이 아무때 한번 얼먹어도 혼번은 얼먹을 테이니 큰일 났다고. 아이고 큰일 났다고 뇌량 꾀들다 보니, 혼번은 몰만인 혼 개가 수캐가 오라서 임금 앞에 오란 딱 었디언 꾸박꾸박 흐거든, 하 이젠 임금의 딸이,

“야, 이거 어떤 짐생이 오란 원 이게 어떻게 현 일인고?”

딸이 허는 말이,

“거, 개가 아니우다.”

“개가 아니믄 뭐이냐?”

“건, 우리 보기엔 개 골아도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중압서.”

“겨난 뭐시엔 이추룩 왕 허염시니?”

“나라의 궁실에 도적놈이 들었 자주 아버지가 즈드니까니, ‘이 도적을 잡아주면 무엇으로 공을 갚아주겠소’ 하는 그 인사우다.”

“하, 그리흐냐. 넌 어찌해서 그걸 아느냐?”

“나 귀엔 다 알아짐네다.”

“그러냐 그러면 그 도적을 아메도 저저 저 즘생을 빌었 잡아야 할 건디, 아 그 무엇으로 공을 갚아야지?”

“이 공을 갚으는디, 무엇으로 공을 갚으는 거이 아니고, 나를 도랑가켄 험수다.”

음향연.

“아니, 그러? 아, 네 공주가 돼가지고 저런 즘생을 어떻게 따라 가겠느냐?”

“거 그렇게 됴네다. 그렇게 됴니까니, 내 저 우리 보기에겐 짐승같애도 짐승 아니고 말소리도 다 알아들읍수다. 그럼 해서 도적을 잡거들랑 나를 줍사고 허는 말이우다.”

“그러니, 제발 나 딸 하나 업는 폭 허영 나 주켄 마라불입서.”

아, 게전 도적만

“게메 말이주, 게문 무관이니 홀 수 없다. 게전 도적놈만 잡아주건 어서 데려가켄 마람젠 마라드라.”

경허나네 고개 고닥거리멍 나간,

“삼일전이 도적을 잡우쿠덴 험수다.”

“아 그러면 좋다.”

고, 아, 삼일만이 사름의 머리를 딱 허연 끊어마전 오란 앞에 떡,놔가져서 그 박 끄박 허연,

“아, 이거 봄서 도적놈 잡아왔수게.”

“그렇냐.”

고, 그리해서

“너는 공주가 돼가지고 저 짐승꼴이 가겠느냐?”

“내 험 수 업수다.”

고, 그런 공주 도랑가켄허난, 등뎡이를 내어물안 등뎡이를 그 개를 톡 타니까

니 인홀불견(人忽不見)이라. 어디 간 처레를 몰라. 인홀불견이란, 헌디 서쪽으로 나간허니, 이것이 필시는 그때엔 서쪽엔 임금이 없는데, 이 공주를 드랑가지고 그것이 개인지 사름인지 귀신인지는 모르는데 가 가져서 그 공주를 랑 가 가지고 벌연된 것이 서양 사름이렌 헌 것이 아닌가 헌 말이 이서
(成啓天, 男·83)

2. 개와 닭의 원한

계불과삼년(鷄不過三年), 닭은 삼년을 더 질르믄 허믄, 토종은, 이제 양종은 멍청헤그네 경안허주마는, 하, 토종은 삼년을 더 질르믄 하면은 사람으로 하는 수가 있어.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트망트망 있기 따문 삼년을 더 질르말라. 구불과칠년(狗不過七年), 개는 칠년을 더 질르믄 허믄 칠년을 더 질탕 그것도 또 사름이 되어가지고 거세기 화하는 수가 있어. 옛날 그랬는데, 옛 우리 한국에서 그말이 어떻헌 말이산디.

헌 사람이 큰 부재의 집의 닭을 백머리를 질탕, 요새 모양으로 닭을 질르디. 그때엔 누게 벨반 사가도 안헝곡 그자 사갈 사람 만약의 이심을 하면 풀 줌도 헝곡 드러 잡아먹어부려. 잡아먹어부르는데, 닭이 삼년을 더 질르완, 대여섯해 질른 닭도 잇곡, 거기 개도 여남은 해 질른 개도 잇주. 개가 이시장닭 귀신이 돼여가지고 나오라 가지고, 늙은 할으방이 돼여가지고, 개 보
“너도 오래 살고, 나도 오래 살았으니 너헝곡 나헝고는 가근하다. 그니, 주인놈이 괴약헌 놈이라. 내 자손을 많이 잡아먹어부리니까니 내가 억울여 그러니 그 원수를 갚아야 허겠다.”고.

“그러믄 어떻 허쿠광?”

“이 주인 타 댕기는 물이 저 창문뚱에 매어졌지, 그러니 그것을 안장 지라. 안장 지우믄 허믄 내 타거들랑 닐랑 앞이 상(서서) 물 익꺼그네 저 사굴(窟)로 들어가, 사굴로 들어가 배염 사는 굴로 들어가자.”

“그 배염 사는 들어가믄 어떻헝니까?”

“거기 가져서 사왕안티 가 가지고 이 원수를 갚아 달라곤 해서, 어 가그헝켜.”

“뱀이 어떻 허영 원수를 다 갚아?”

“그 뱀 대죽이 막 들어오믄 허믄 그 놈의 집이 막 에워싸그네 막 물어부리꼭 허지 안허느냐.”

“겨믄 경험주.”

개가 이젠 사름이 되어가지고 호연 물안장을 지우고 몬 허니 그 놈의 뚫은 장 뚫 귀신은 딱 나오란 영감이 되영 타 가전, 나 ㄹ리치는대로만 굴라.”

드려 그자 산중더레만 올라가. 가당보니 큰 어귀가 있어. 가당보니 배엄이 있 었는디, 아 멍석부러기만이현 배엄이 나오란 떡 있어.

“사왕님, 저 원수를 좀 잡아주십서허니 그 이 저녁 찾아온 바우다.”

“니 원수는 무슨 원수냐?”

“우리 주인놈이 꽤 씹스러워 가지고, 내 자손을 몬짜 잡아먹어부리니깐 내 하 도 청원허여 가지고 사왕님 전(前)에 오란 등장들영 그놈의 집 막 멸종을 시켜 줍센 영 오랴수다.”

“그러지.”

“그 부재로 살지?” 거기 삼해유지, 삼해유, 집어뀐 삼해유가 있지 안하 냐?”

“삼해유(三亥油)가 뭇입니까?”

“일년이 해년 해월 해일에 뻥 지름이 이시민 우리는 가지 못한다.”

“그 지름이 이시믄 우리는 활동허질 못한다.”

허니,

“아, 그 지름 업수다.”

고 그러거든.

“내 계민 우리가 모릿날은 가겠다. 모릿날은 네 원수를 잡아주겠다. 그중 알 라.”

“아, 그리호리다, 고맙수다.”

이젠 집에 돌아오란 그 집은 부재칩이난 장남이 있었주. 그 장남이 ㄹ바서 말 들으니까니 아 뚫망에서 이거여, 저거여 말소리가 나. 어떻허난 뚫이 뚫망 안에 사름이 무슨 사름이 싣고 호멍 들어보니까니 그런 말을 개하고 서로 허듯 이,

“모릿날은 사왕이 틀림없이 올게라 올게니까 우리가 잘 대접 헤여야지.” 호멍 허염거든. 하 이젠 그 장남이 주인ㄹ라 이 말을 곁았거든.

“사실은 이만저만 허연 허염수다.”

“아, 그러냐.”

고, 아 뒷날 아침은 보니 물이 막 땀으로 농가져서. 아이고, 참 물 탕 가 오랏 구나게.

“아, 모릿날 전의 뉘망을 일절 다 잠가부령 허나 냉기질마랑 막 잡아불라.”
고.

막 잡아부렸주. 막 잡앙 먹지 못허믄 댁겨 불기도 허곡. 막 잡아부련……. 삼해유 말을 그딴서 몬딱 그 개하고 이제 그 뉘 하르방하고 삼해유만 이놈의 어승을 허민 그 사왕이 들어오민 막 거세기 아이 주인, 아 이제 주인이 마마니 생각해 보난, 삼해유가 장판어. 밖엔 파는디가 어실거난, 뒷날랑 장판에 강사오렌, 장남마라 삼해유를 사오렌 허연, 장판이 간 삼해유를 사단, 으잣에 막 뿌리물 허연. 뿌려놔두니 모릿날이엔 현 날은 사왕이 오켄 현 그날은 그밤에 배엄이 들어오는디, 막 그가 떼거지로 세상 천지 배엄은 막 들어오랏어. 막 들어오단, 삼해유를 뿌려 노니까니 그 독을 맞창허니 몬딱 그자 울 바깥디레 배엄이 스몹 머뭇지기쾌게 죽언. 뒷날 아침은 주인이 일어남 보난 사름발 디딜틈이 셔? 막 배엄이 죽언 거시기허연 몬 그때 경험 뱀 치와난 말이주. 겨나네 계불과삼년, 구불과칠년, 옛날엔 그 밖에 더 질르지 말랜 허엿주.

(成啓天, 男·83)

3. 선녀와 나뭇꾼

영주산이 어떤 사름이 가난한 사름이 있는데 어머니 허날 모시고 사는데 푸나무를 해당 폴아먹젠 허연 푸나무를 허레 한라산에 올랐지. 올랑 간 보니까 낭을 허노벤 허니 큰 사슴이 뛰어오라 가지고,

“날 살려줍서, 날 살려줍서.”

허거든 허니,

“하 내가 어찌 너를 살려줄 수가 있겠느냐? 저 네가 죽을 일을 허였느냐”

“하 나 즈름에 곧 저 사냥하는 사름이 좃앙 나를 잡자고 나를 딱라 읊네다. 허니 살려줍서.”

“어떻 허영 살리느냐?”

“그저 옷 벗어논 소꿉더래 내 마브크매 옷을 더꺼그네, 여기 사슴이 봐저랭

헝거들랑 저리로 넘어가랴 경 골아불민 가불꺼우다. 경헝영 살려줍서.”

“기여 어렵지 안헝다, 경헝라.”

이제 옷 벗어논 거 툅 더꺼내 즈꿈이시니까니 침 화살동께 두러맨 이가 조차 와서,

“여보, 일로 사슴 지나지 았헝소?”

“아 사슴이 어떻게 일로 뛰영 가그네 저 동더래 나가는 거 았안게, 나는 어디 간 처래 몰라요.”

아 경헝 이제 그 사슴을 잡으래 쫓아간, 쫓아가부니까 이 사름이 이제, 아 노리가 이 사슴이 나오라가지고,

“아이고 생원 덕분에 내가 목숨은 살았으니까 공을 갚아드리겟소.”

“하 무슨 공을 갚으겟느냐.”

“왜 부인네가 잇수가 엇수가?”

“나는 안적은 결혼도 못해본 사름이라.”

그러니,

“그러거들랑 요 저 장오릿 물이라 헝 물에 가 가지고 ㅁ만히 곱아듬서 보면 은 이일날은 옥황상제의 시녀덜이 서이 느려웁네다. 서이 느려오랑 모욕헝여 그네 옷 벗어튀 다 옷 벗영 내버려뒤그네 모욕 흡네다. 모욕헝민 헝나 옷을 곱저 그네 영 주지맙서. 드렝헝고더랑 주지말민 헝디 살켄 헝게우다. 헝디 살켄 헝거들랑 아들 시게 나기 전이랑 옷을 주지맙서. 옷을 주게되민 그 옷입어그네 옥황더래 올라가봅니다. 헝난 옷을 주지 맙서.”

응 헝영.

“하 계민 고맙다.”

이젠 노린 가 부리고 에 이제랑 경헝준 이젠 집의 오란 어멍ㅁ라,

“내일랑 이만저만 헝연 다시 산의 오르쿠다.”

아 거 그리 헝라곤 헝연 어멍ㅁ라 경 ㅁ라 된, 뽏날은 아 일찌감치 장오릿물 에 간 ㅁ만이 곱아도서 보니까니, 아 고운 미인덜이 슬슬 느려오라가지고 옷 벗영 툅툅 내버려두고 이젠 모욕을 헝거든. 에 이제 옷 하나 곱지젠 옷을 헝여재 옷을 곱전. 헝 펜이 간 곱았지. 곱안 ㅁ만이 보니까니 다른 사름덜은 모욕헝여서 몬딱 옷 아니 일러븐 사름은 그 옷은 놀개옷이라고 헝 옷인디 그것을 입으민 옥황에 올라가고 그거 안 입으면은 못올라가주게. 경헝 따든 옷 일러븐

사름은 못가서 찢찢하여,

“하 이거 나 옷은 어디 갔는고.”

아 어디 방방곡곡을 찾자보더니 아 돌아댕기단 보니 어떤 머슴이 아자서,

“하이고 생원님 나 옷 봐건 주서줍서.”

“아 내 옷은 뵈진 뵈소마는 내 하고 혼디 살미나 하민 옷 주려니와 그렇지 안하영 옷주지 안하겠다고.”

“아 그민 ㄴ찌 살켄.”

아 그랜 ㄴ찌 살켄하니까니,

“아 게민 집으로 가자고,”

하연, 돌아아정 집의 오란 할망ㄴ라,

“이만저만 하연 이거 우리 부인으로 웅 돌아오랴수다. 하면서 그중 압서.”

“하이고 그러냐고.”

거기 살멍 그 옥황에서 그 시녀들이라 노니 조화가 있어서 조흔 기화집을 막 지어왔어, 그 여재가 몬 지어와 가지고서 여기서 우리 살자고 하연 사는데 첫아들 나오니까니,

“하이고 옷 줍서줍서.”

드러 빌어. 그만 하연 오꼳 옷을 줘 부렸단 말이라. 아들 시개 나건 주랜 혼결 그만 하나 나니 줘버리니깐 그만 그자 아진 안아ㄴ전 그만 놀개옷 입어아정 오쉴 올라가버리니 그만. 둠 베리던 갠 지붕이나 베린다. 편편하연,

“하이고 이거 원 어떻하민 조코.”

아 드러 움만하고, 하다가 할 수 업다고. 집의 들어오란 어머니 ㄴ라,

“이만저만 헨 그만 부인네는 오꼳 가브리고 뭇 하니까 살 수가 엇수다.”

“하 게민 어찌하느냐”

“닐은 다시 가그네보쿠다.”

가그네 뵈 이 백록을 찾자사주 백록을 찾자그네 백록을 찾자야. 이제 뵈날은 올라가네 이 한락산을 빙빙 돌멍,

“백록아 나오라 백록아 나오라”

드러 돌아댕검시니까, 백록이 나온단 말이어.

“하이고 어찌헨 이렇게 다시 읊데가.”

“아 이만저만 하연 느말 안들언 아들 시성제 나건 주랜혼결 그만 아들 하나

난 흥건 도라도라 흥건테 쫓더니 오꼴 그만 아기 안아ㄴ전 올라가브러라.”

“아 게 무사 경흥데가게, 아 시개 나건 주주 난 그자 경 안흥카브덴 흥난 경 해라. 어떻흥민 되염직흥니.”

“이젠 당최 옥황시녀들이 인간세상으로 내려오지 안합니다. 모옥 안흥니다.”

흥니, 그 두레박으로 옥황에서 내려와 그네 그 두레박으로 물떠당울령 옥황에서 모옥흥주 아니 내려옵니다. 거니 그 두레박을 시째 노력오는 두레박더래 생원이 들어 아자십서. 생원이 들어 안지민 물거려시카브덴 막 동경 올라가보민 그디 부인네가 이실거우다. 그디 강 츠장삼서.”

“아 게건 경 흥켜.”

그만 백록은 가브러. 아 뒷날은 이제 ㄴ만이 강 곱았주. 곱아사난 보니까니 첫 번 두레박을 내려와 그자 물거려지민 올라가꼭 또 두번째 그리 흥고해서 세번째는 내려오라. 에 술째기 들어안자 흥영 쪽하게 들어안즈니까니 물거려져시 카브덴 드러 동건 올라간 올라간 보니까니 아기는 그새에 빼영빼영 흥는게 욱았단 말이라.

“하이고 아버지 왔구나. 아버지 왔구나. 도굽서 도굽서.”

그 부인네는,

“밋세글령 오지말걸 어째서 왔는고,”

공장더래 특히 걸언 내브리난 아이가 동기연 아이가 아방을 무사 걸영 내부럼수가. 경허네 올라간 거기서 옥황이 올란 산말이 이셨지. 겨고 저 할망도 몬 그 두레박 내려 올레당 살고, 경흥연 옛말이 그런 말이 이서났주.

(成啓天, 男·83)

4. 상정승 이야기

옛날 이제, 그 한 성의 상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일생을 장가도 못가고, 사십이 되도록 남의 집살이를 했어. 남의 집살이를 하다가, 돈은 모인 통통 삼년동안 모인 것을 딱 저축해 놓고 제가 장가 한번 못 가봤으니까, 세상 살 것이 없거든, 그러니깐, 상씨가 생각하기를 내가 세상 살아서 뭐 하냐. 서울에

가민 점 잘 친다는 사람이 있으니깐, 그 사람한테 가서 일생을 판단이나 하고 죽어버리자고. 이렇게 해서 번돈을 몽땅 가지고 갔어. 그래서 점장이의 가니깐, 강 보니깐 노복도 많고 이렇게 혼디 그렇게 왔노라고, 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돈을 척 내놓으니까 장방전을 탁 잠가놓고 가만히 점쟁이가 아자서 아무 애기도 하지 않거든. 한 시간이나 이상 있다가,

“거 있느냐” 해서 종놈을 부른다. 한 놈이 왔으니깐,

“제일 힘 센 놈 다섯만 보내라.”

그 다섯이 왔어. 왔으니깐 점장이가 하는 말이,

“이 사람 가마니에 딸딸 물어다가, 묶어다가 서수만 바히, 서수만이라면 아마 마포쪽인 것 같아. 그디갈 것 같으면 토롱하는 장소, 토롱터가 있으니까, 거기 실어다가 나무가, 동쪽으로 벌은 나무가 있는 가지에 가 그 가지에 다가가서 매달아 붙어라.”

경헌 그 종놈들은 주인이 명령한대로 들어서 그 놈을 딸딸 가마니에 묶어가지고 움작도 못하게 그 서수문 바깥길 갔어. 가니 낭에 돌아매 부는거라. 그 놈들은 와 부는거라. 꿈쩍없이 죽었다 말이며. 그러자, 밤인디 일기는 거무칙칙하고 비는 쏟아질 것 같인디, 할수없이 사람 하나 없고 죽었거든, 그래서 근심해서 있는 차에, 난데없이 바람이 불더니 비가 때려오지 뭐여. 행편없이 때리는, 그래서 죽자살자 이제는 이래도 죽을꺼, 저래도 죽을꺼, 혼니깐 한번 몸부림이나 쳐 보자고 해가지고, 그 돌아메디서 몸부림을 쳤어. 친게 어떻게 어떻게 혼 것이 그놈이 떨어졌다. 떨어져니 밤이, 뭐 시커먼한 밤이니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른고. 어디 갈디도 없고 웅 보니 뭇이 있거든 말이며. 뭇이 나람지, 우리 제주도 말로 나람지 둘른 게 있거든. 그 비를 피할라고 거길 들어갔어. 들어가니깐, 가만히 있는데, 이제 떨어져서 비를 피해서 살긴 살게 되었는데, 생각하니깐 참 요상스런 운명이건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뽀 소리가 귀에 들려. 이상스럽다 해서 가만히 거기 관이 토롱안에 관을 놔서 나람질 덜지 안해요. 그 속에 들어가더니 그 관속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말이며. 하 이상스럽다. 가만히 들으니 완전한 사람이 살아있는 소리가 나. 이제는 밝기을 지들려서 보니깐, 관을 해체 비도 게이고 하니깐, 그 놈의 관을 깬다 말이며. 깨보니 여자가 당혼산 여잔디, 곱게 누워서 그자 문기적만 하지, 정신은 아무것도 없이 그 여자를 끌어내서 관에서 끌어내 가지고 자기가 업고 동네인들을 찾아

오ندي, 어느 주막엘 갔어, 주막에. 들어가지고 주막 주인 보고 방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방 주니깐 그 미움 끓여서 뱉이고, 아주 방 뜻뜻이 해서 말이여 체온이 돌아오게 해서 살려놔거든. 그러니까, 뭐 그 여자를 간호했으니깐 자기 손 안닿은 디가 없을테주게. 뭐 부정한 짓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회복을 시켜놔서, 자기 고향을 물었단 말이여. 나는 아무 디 대감 딸인디 말이여, 내내 병들어서 죽으니깐 갔다가 내버린 거라고. 그러니 서울가서 내 집을 찾아서 애기하든 곧 알아서들 훌거라고. 이제 간호하다가 주인한테 잘 부탁해두고 이 여자 편쩍 건들지 말고 잘 간호해 달라고해서 부탁해두고 서울을 왔어. 와서 그 대감을 찾아 문앞의 가니 종놈들이 딱 지키고 있거든. 대감을 면회하겠다고 하니 면회를 시켜주나. 영 안 시켜주거든. 안 시켜주거든. 그러니 이거 싸움박질이 난거여. 큰 소릴 하고. 허니 대감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뭘 산책을 하ندی 문밖의서 큰 소리가 나고 있거든. 종들을 불렀어.

“웬일이냐” 고.

“어떤 빌어먹을 놈이 와서 대감님을 뵈겠다고 그러합니다.”

“들여보내라.”

이제 가서, 들어가라고 해서 가니깐 들어가서 대감을 봐서 인사하니,

“어떻게 해서 날 찾아왔느냐.”

“집의 따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다 말이여.

“왜 그걸 묻느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사유가 있어서 그러합니다.”

“죽었다”고.

“죽은 딸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웬 말이냐.”

게 그 사유를 말하니 자기가 한 행적을 말했다 말이여. 말하니깐 가이 큰 오빠를 불러서 말이여 이러이러 해, 너의 동생 살아 있다 하니 가보라니깐 거기 식구들 부인들이랑 다 쫓아왔어. 그 사람 앞세우고[테이프 교환] 내버릴 수가 없으니깐 같이 왔다 말이여. 이제 그 여기 같으면 행랑채 그 저 뒤문간방 같은 디다가 자라고 호고 식사도 하라고 하고, 그 여자를 또 그 몇 날 내외할테니깐.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니깐, 이제 아무 정승 딸이 살아왔다 이렇게 호민 소문 나니까니, 정승집에서 구혼을 호거든. 구혼을 호니까 좋다고 해서 서로 혼인을 홀려고 호는디 여자한테 말 호니까니,

“난 남편이 있다”

고.

“지금 날 살려준 사람이 내 몸덩어리 안 만진디가 없을겁니다. 나는 벌써 그 사람에게 몸을 메껴신디 판디 시집갈 수 없습니다고, 그 사람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니까 할 수 없이 다른 디는 거절해두고, 그런디, 일자무식이 고 못났고 사위라고 할 수가 없어. 그 집에서 네 이놈을 딸의 원이 그러니까 살리기는 살리는데, 이놈 부터 없애여 붙여야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디 정승이, 식구들이 그 피를 썼는데 어떤 피를 냈냐하민 그 남산 밑의다가 흥가가 있다 말이어. 아주 흥한 집이 있어. 못사는 집이 있어, 그러니 그 집을 사가지고 편씩 잘 수리를 해가지고 그딴를 딸 호고 살릴 걸로 계획을 호는디, 딸은 보내지 않고 사위만 미리 보내서 이제 그러니까 호룻밤 사이에도 죽어분다 말이어 그집의 가민, 그러니까 죽어볼 걸로 생각해서 살며는 딸을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써 다른 디 결혼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보냈다말이어.

“너 아무 날, 아무 집의 이사 갈꺼니까 너 친히 나가서 봐오라.”

한번 간 그런 생전 보지 않을 놈의 기와집 어리어리한 디 가서 이거 너 살 집 이라고 호니까, 보니 참 좋아. 좋거든 말이어. 이제 너 각씨는 내일이나 보내 줄테니 너 가서 오늘 밤만 누워라. 이제 이 놈이 좋아해서 와가지고, 뒷날 밤을 자니까 밤을 자는디 그날 밤에 요상스러운 소리가 나는데, 사름이 견디지 못할 그 무서워서 견디지 못할 소리가 나는데, 천장에서 말이야. 나무가 짝진저정 떨어지는게, 거니 그것에 놀래서 다른 사람은 뭐 같아 죽고 죽고 해서 살지 못하는 집이어. 그래서 흥가라고 호는거여, 거민 가만히 서보니, 그렇다. 그렇게 하자. 거기서 무엇이 나오는고 호니 돈이 쏟아지서 내려온다 말이어, 아이고 이거 잘 됐다 해서,

[조사자: 낭 탁 떨어지니까, 거기서]

그렇지 그 돈이 하도 오래 있어노니까, 그놈이 그 거기에 신이 붙어가지고 나쁜 짓을 호더구만. 돈에, 옛날 그런 예가 많이 있었어. 그렇게 해서 못사는

집인디 그놈이 가서, 운을 타고난 놈이니깐, 거기서 살았다 말이여. 아 뒷날 아침은 관을 하나 종놈들이 들어메서 와보니깐 이 놈이 편득이 앉아가지고 돈만 드러 세고 있거든. 아 그 종놈들이 겁이 바짝 났어. 죽질 안했거든. 그러니깐 그 상씨가 보니깐 길찍한 괴를 하나 가져왔거든. 너 이리 가져와 보라구, 거 만히 돈 세워 놓기좋은 거거든. 거니까 돈을 자뻑 재냈어. 재노니깐 종놈들이 와가지고 주인마님께 참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딸 팔자가 그렇고 그놈이 운이 있는 놈이니까 됐다.”

그래서 이제 딸을 보내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뭐 돈 걱정도 없지, 칩 걱정도 없지, 걱정이 없다 말이여, 각시 예쁜 각시겠다. 이제 각시가 말하기를,

“당신이 사십이니까 늦긴 늦었지만 공부를 좀 하시오.”

“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말이여. 할 수 없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말이요.”

“독선생을 앓혀가지고 한 십년만 공부할 거 같으면 당신도 벼슬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들으니 좋거든. 하겠다고. 마흔나서 공부하는 사람이 간세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했지. 그래서 참 십년간 사는데, 배울만히 해가지고, 이제 당신 과거를 보시오. 과거날짜 얼마 있으니깐 가서 보라고. 과거 급제를 했어.

그래가지고 정승까지 됐는데, 상정승이라고 불렀는데, 또 나이 오래서 되었지만, 원체 그 속이 깊은 사람이라 말이여. 그 요새 정치를 해도 선정을 해서 백성을 편안하디불고. 하니깐 상정승이라고 일흠이 났는데, 그 그되 그 마누라 몸에 자식이 났는데, 아들 형제를 낳어 아들 형제를 낳는데, 형은 어릴때부터 사람들이 신동이라고 세상이 일컬어 한번 보면 다 알고 안본 것도 다 알고, 그 다음 아들은 이제 한림학사야, 요새 한림학사민 큰 선비지. 우리 국가에서 한림학사면 일류가는 선비지. 그런 재주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 전라북도예 고부라는 고을이 있어. 고부. 고부라는 고을이 있는데, 그 고을이 원님이 가민 죽는 다 말이여. 가민 하루밤 자민 죽고 죽고 이러거든. 그 원님 보낼 사름이 없어. 가민 죽을라고 누가 갈꺼여. 국록으로 해봤자 가민 죽어버리고 가민 죽어버리고. 뭐 지원하는 놈이 하나도 없거든. 상정승이 거 가만히 생각을 하니 자기가 정승이 되니 꼭 그 고을을 지키긴 지켜야겠는데 보낼 사름이 없거든. 그래서 만조백관이 모여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누구를 보낼려 쓸려고 하니 입

하나 떠는 사름이 없어. 홀수없이 내 작은 아들을 보내겠다고 지원을 했어. 죽을지라도 자기가 정승이니깐, 일단 책임을 지고 보내야겠거든. 아 그런다고 뭐 정하자고. 적자고. 집의 와 가지고 작은 아들보고 니가 가게 되었으니 갈 채비를 차리라 명령을 하니깐, 그때엔 나라의 명령이나 부모의 명령이나 일단 떨어지민 거역할 수가 없거든 죽어도 가게 되거든. 행장을 초려가지고 내일 아침은 떠날 참인디. 그러자 그 큰아들은 방랑자로 됴글어, 그 천재나 한 사람이. 베슬 홀라고 안 하고 노름판에나 됴글고, 술 먹는 디만 됴글고, 노래하는 디나 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 집의도 붙지 않고 방랑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동생이 내일 아침의 떠나는 아싯날 저녁에는 집에 찾아왔어. 동생보고,

“너 내일 아무 고을 원님으로 간다지.”

“예, 그렇습니다.”

“너 그럼 오늘 나하고 바둑이나 한 수 하자.”

그 동생은 장안의 일류 최급이며, 바둑이 예 바둑이 우리 형님 바둑 두는 것도 못봤는디 바둑을 두자하니, 형의 명이라 거역할 수도 없고 그 내 이기면 되지 해가지고 바둑을 뒀다 말이며. 바둑을 두워보니 한 번 바둑 둔 적이 없는디 자기가 지거든. 하. 반드시 천재는 천재로구나. 너 그럼 내일 아침은 잘 잤다 와라 하면서 글 한짝을 말하는디,

“설타음순시욕동(雪打飲臂詩欲凍)이라 이렇게 말 하거든. 이렇게 세번 설타음순시욕동, 설타음순시욕동 이렇게 세번 말해가지고 성님이 싹 나가붙어 동생이 글 잘 하는 사람인디 그거 알아듣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진 못했어. 그자 그때 들을 뿐.

그래서 그 이튿날 떠났거든. 떠나서 떠날때다가 그때는 다 주내사납 다 불고 이렇게 거들거리고 왔는디, 그 사람은 상정승이 떡 뒤에다가, 자기 아들 뒤의다가 힘이 시고 날랜 그 장군 하날 팔라 보냈어. [조사자: 주내사납이 뭐파] 요새 주내사납은 피리 있잖아. 옛날은 그걸 주내사납이라고 했거든 말이며. 요새는 일흠이 틀려서 통수 같은 거. 이런 거 있지만 옛날은 주내사납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몰. 타가지고 그래서 거들거리서 왔거든. 그 사름은 혈혈단신 자기만 혼자 왔어. 제우 짐꾼 하나 데리고 와서 이제 고을이, 여기서 만약 여기서 서귀포쯤 자기가 득임할 땅쯤 될거 같으면, 하루밤을 여기서 잤거든 말이며. 외딴 주막에서 잤는디, 그걸 알며는 거기 고을 백성들이 원님을 모시려 왔

지만 거역했어. 난 나중에 간다니 나 걱정은 말고 다 돌아가라. 그래서 도임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임을 하면 자기가 돈에 욕심을 내가지고, 그 마을 죄
 인이 누구고, 어떤 일을 해서 잘못한일이 있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 아주 읊어
 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여. 뭘 글을 쓰는지 사방에 그 동헌에 촛불
 을 켜놔 가지고 글 쓰는데 문제여. 뭘 쓰는지 모르고, 하니깐 그것은 자기가
 그날밤 죽어볼지라도 장래 온 사람이 선정을 베풀라는 것, 그 정치를 짚하게
 쓰는 거여. 그날밤 한 시쯤 시제로 한 시쯤 되니까 변소로 가고픈 시간이거든.

변소에 가서 떡 앉았더니, 여기 말로 디들광 알로 손이 하나 쭉하니 내밀영
 부탈을 툇 잡는다 말이며. [아이고] 그것에 놀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것에 놀래서 겁나서 기절해가지고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죽었어. 척 붙잡고
 하니 이상하다. 넌 누구냐 이렇게 했다 말이며. 원님이, 너 왜 이렇게 호느냐
 이렇게 하니 이제 사람으로 척 변신해 나와가지고, 저는 이 고을 사는 시생입
 니다. 선빔니다. 이 시째 시생입니다. 자기 몸을 낮춰서 얘기하는거주. 제가
 자기 말로 선배라고 못해가지고.

“시생인데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게 뭐냐?”

“제가 글을 좋아해서 글을 배웠는데 글 한쪽을 지워서 그 짝을 채우지 못하
 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원한입니다.”

“글이 뭐냐.”

“매표가구곡생향(梅飄歌口曲生香)”

짝을 못 채웠단 말이며, 너 그러냐고 그땐 그 사람이 무심코 그게 나왔어.
 문쳐 얘기할거. 그걸 이걸 문쳐 쓰고 못 얘기할 걸 나중에 써야주. 한 귀가
 되는데. 그러니 그 원님이 변소 앉은자리에서 “설탄음순시육동이라” 이렇게,
 [조사자:대번에 탁 대었구나] 무심코 나왔어. 그때야 퍼뜩 깨달았어.아,
 우리 형님 신동이다. 그렇게 깨달았다 말이며.그래서 그 후로는 그 마을에선
 그런 사고도 생기지 않고 원님이 죽는 일도 없고. 아 좋고. 아주 좋은디,
 또 사람이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이 편안히 살고, 잘 펜헌 세월을 보내었고
 이렇게 했단 얘기여, 허허허.

[아, 오히려 그 성이 원님으로 와서민 더 잘 할 걸] 그거야 그거야 말 할 수
 없지. 하지만 그런걸 칭하민 안된다 말이며. 남은 덕에 미친 걸 생각하고 자기

뜻을 못구하자니깐 풍태중 낭태중 호는거주. 그렇게해서 생활홀거주. 그러니
까 사름이 나이 만타고 말이여, 공부 안 홀거 아녀. 그 상정승도 그리해서 영
의정까지 올라갔는데 말이여. 사십대에도 하늘천 따지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은 낙심홀거 아녀.

(이기방, 男·75)

5. 쇠북 효자 이야기

아, 생각났저. 그 효자가 있는데, 남의 일, 남의 고통 해줘그네, 그날 일 풀
아그네 품 반앙 쓸 뒷말 ㄹ정오랑 어머니 밥 허영 드리고, 이거 오늘 삼서
허여동 다시 강, 두 불체(두 부부)가 다시 일 나문 일 허영 쓸 반아오랑 허곡
허는디, 여, 아들 댓살 난 늙이 있는데, 자꾸 오랑보문 할망 밥 먹는 걸 오꼴
둘러먹어부리물 허난 할망은 배고광 영 오그라젓주.

“아, 이 아들은 아덜이 영허니 어머니가 저 아이 때문에 제대로 이젠 멩대로
못살켜, 우리 낳으른 아이곡 허난 아길 어디강 물어불자.”고

“아, 아기를 그추록 아까운 걸 물어부령 뉘카!”

응호멍 그 아기어멍은 좋지 아녀게 여겨.

“아, 겨주만은 어멍이 제 명대래 못살앙 죽을로구나제.”

“게전 경 험주기.”

허연, 밤에 누엄 잠시나네 아기를 저 이불에 싸가전 잘 질머지언, 남편은 팽
이 둘러메곡 해 가져서 저 한락산더레 올라가당 어 갈만이 가지난 땅을 판 아
길 묻젠, 드려 땅을 광광 파는디 무엇이 팽이 끝맹이에 디글락 디글락 하는 소
리가 난. 그놈 파내영 보난 어 거세기 철고(鐵敲) 쇠북이라, 쇠북, 쇠북이라
거세기 호니 아사내영 보니 참 금으로 멘근 핀찍핀찍한게 바로 불이 흰히 싸지
는 금으로 멘근 쇠북이라. 그놈 판적 닭아내 두드려보니 하 소리가 종기를 짝
이 없이 소리가 좋다. 그러니, 그게 원 어느 왕 때산디 건 모르켜, 아마 이씨
때일거리. 건 이씨 때일거라. 오래 안홀말이라. 아 경헨 그놈을 판적 닭안 허
니 하 빛깔이 좋고, 불이 흰히 싸전. 거세기,

“아, 이진 이 아이 복력에 이것이 나온 것이니까니 이 아을 우리 묻지마랑
업영가곡, 이거 ㄹ정 가자. 이진 필시 금덩이니까니 이것만 폴아도 우리가 살.

전디 애기 묻지 말져.”

계전 경향자 아기를 다시 질머지꼭 허연, 그 쇠북 질머전 집으로 오랏주. 오라 아기고라,

“이거 두드리멍 이디서 할망 밥 먹는 거 허다 먹지 말렌. 그거 먹어불믄 할망 배고픈다.”

영 허멍 그놈을 표끄테(들보에) 쇠북을 드라메영 내부리니, 이놈의 아이는 몽땡이를 가져 강 그거 두드림이 일이라. 겨니 할망은 밥 뵈아먹어불지 아녀고 그거 그 두드림 기저 들으멍, 거새겨 허여. 혼번은 우리 어느 왕이 높은 동산이 점블리레 나산, 소릴 들어보니 귀에 그가 쇠북소리가 들엄직이 나.

“아, 이거 어디서산디 난 북소리가, 이런 북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닌디, 이상허다. 강 조사허여 올리라.”

허연, 이제 아래 부하덜궤라 시키니, 조사허연 보니까니,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름이 집 표끄테 드라메연 두들기믄 허는 걸 보고

“니,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시니?”

“일허레 가수다.”

“어느 때 오느니?”

“어두워가믄 옵네다.”

경헨, 이젠 어둡도록 기드렸주. 기드려 오랏거든,

“어, 이 북이 어디서 나온 북이요?”

“그거 땅에서 묻어진 걸 팡 거세기 여기 돌아땡 아이궤라 방땡이 허랜 헛 거우다.”

그건만 알아궤정 나라에 강,

“사실은 이만저만 허연, 사름은 궁하게 사는 사름인디 아 표끄테 도라메영 아이궤라 방땡이 허랜 두드리는 거우다.”

아, 그사름을 강 불러오랜 허니까니 이젠 그 사름을 불러 강,

“너희 집 쇠북이 있언, 아이가 두들김을 허니 그 북이 어디서 나온 북이냐?”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소원대로 그자 므음에 잇는 말 다 죄다 허쿠다. 저희 집이 땃날 난 스나이놈이 허나 잇는디, 어머니 밥 허여구네 잡순센 헨 드려그네 우리는 남의 고공일 헤레 강 오랑보믄, 할망이 배고팡 거세기, 이놈의 아이가 자꾸 음식을 뵈아먹는 따문 어머니가 오래 살지 못허켄, 이놈의 아이를

묻어부려야지 못쓰켄 헨, 아이를 묻젠 산중으로 업영 간, 구녕일 파쟁허난 팽이 끝에서 무슨 소리가 난, '빼어내영 본죽 이 쇠북입데다."

"아, 그러냐, 너 효재다! 효자니 그 쇠북을 우리에게 이제 줘라. 드리면 너에게 녹을 내리올게이다. 녹을 내리올터이니 그러니, 그 줄 알아가지고 그거 받곡허영 할망 잘 모시고 살아라."

"고맙수다."

경헨 돌아가라. 아 이젠 돌아가난, 해마다 백미(白米) 백석이나 해마다 백석씩 탁탁 내루와 주니까니 그 사람이 부재로 잘 살았주.

(成啓天, 男·83)

6. 효자의 신선바둑 구경

이 한락산 뒤에 매촌이라 훔 옛날 마을이 이서나서. 매화매췌에 마을 촌췌(梅村), 매촌이라 훔 마을이 이서났는디 거기도 또 고사 곶이 총각이 어머니 훔날 모사가 지고 사는디 어머니가 뺑이 들어가지고 죽도 살도 안햏여. 하이고 이거 어떻햏민 조코. 무당을 빌어서 곶을 해봐도 안살고, 약을 햏여봐도 안살고, 뽕원 뽕걸 햏여도 안살아. 뽕츄이 업는 거 같아. 죽도 살도 안햏영 거세기 햏니 이젠, 한락산의 제사를 드렸지.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 살려줍서 살려줍서. 산제를 정신 들여가지고 막 몇틀을 햏염더니, 햏루는 집의 이시니까니 어떤 백발 노승이 구절육장 짚으고, 이제 떡 들어와 가지고 권재를 햏였다고.

"하이고 옴 가까이 오십서."

햏영 모사들언,

"우리 어머니 뺑이 이만저만 햏여서 죽도 사도 안햏니까니 이뺑을 좀 구완햏여 줄 수가 이시카마췌?"

"뺑자 뽕시다."

뺑을 보니까니 췌 진찰을 해봐.

"이거 저 약을 캐당 뽕여야 좋겟다고."

"어떤 약을 햏니까?"

이 한락산의 초복 중복 말복에서 중복날에는 이 한락산 지금 정오릿물이라 훔 물에 삼신선이 뽕 중복날을 느려온다. 느려오니까 거기 가그네 그 삼신선이

바둑을 두는데 바둑판 곳으로 휘황게 돌아댱가면서 꽃 핀 풀이 이서 꽃 핀 풀이 이시니까 그 풀을 하다 그 바둑 두는디 슬피지 말아그네 약만 부지런히 캐자건 오라버리지. 그거 배리민 안된다 하니까니 약만 캐그네 ㄴ저당 그 약을 딸령 맥이민 어머니 뺑이 좋다.”

그러니 경하라 하니,

“고맙습니다.”

하 그 저 권재 쏘을 춤 혼되 거려다 놔네. 에 이제랑 어느제랑 중북날이 돌아오 리나. 그날 저날 혼 것이 세월이 열일레가 되서 중북날이 돌아오랐지, 오 돌아 오니 앞집의 할망이 그런 할망이 있는디 할망신티 가 가지고,

“우리 어머니 물기럽댁 하건 물 거려 주고 하영 하영십서. 나 약을 캐어 오 겠수다. 하니까니 오늘만 어머니 지켜줍서.”

“경하주제.”

그 할머니 돌아당 안져두고 이 사름이 골래 차고 뵈 그릇 ㄴ전 가지고 갔덴 말 이라. 장오릿물에 ㄴ만이 간 이서 뽕서 보니까, 아 삼신산이 바둑을 두는 디 백발노장덜이라. 바둑을 두는디 아 그저 무엇을 봐서 그렇게 지껴지는지 잠지 치멍 드러 웃어. 허 무엇을 봐서 저 하르방 그렇게 웃는고 보니까니 그 바둑판 이 곳으로 꽃 핀 풀이 있단 말이라. 에 그거, 저것이 필시 약이라고. 이래서 약을 캐내 부지런히 캐언 그릇을 ㄴ득왔주. ㄴ득안 이제 거쑈 오라브리민 홀건 디 오라버리지 안해가지고서 그 하르방 바둑 두멍 드러 지껴정 웃는 걸 보고, 아 가만이 구경을 해보니까 바둑판위에 해오래비 생이 하고 가마귀 하고 둘이 씹 는디 엮어졌당 갈라졌다 하멍 막 싸움 붙어서. 이걸 보꼭 드러 웃나 웃어. 그 러하단보니 그것이 신선인디 그리 하다보니까 인간 사름이 오란 어염에 오란 아잔 구경햐서.

“하이고 이거 큰일났다고. 우리는 바둑두면서 지껴정 하단보니 인간 사름이 오라가지고서 이거 몇 해를 지나부렀구나. 이거 큰일났다고.”

이제 바둑을 설런 더껴두고,

“당신 어디 사느냐고?”

“이만저만 하연 저는 매촌 삽니다. 우리 어머니 뺑이 나가지고 이만저만 해 서 약을 캐러 오란 이럽니다. 하도 재미지게 하판테 응 구경했수다.”

“하이고 큰일났소 이거 몇 해를 지나 부렀는디 당신 어떻게 해서 어멍을 구

할라 함민 일찌감치 갈거지 그렇게 호느냐고. 강 보라고 큰일났다고.”

이제는 하 그말 듣더니 내 구경을 호지말걸 그만 괜히 오래 구경해졌구나. 경해서 집의 오는다, 여기 끝으면 저 웃오름 끝은 오름이 있는데 그 오름을 고 늑해가지고서 그 옆당이 사는 사름인디 아 거기 오당봐도 사름 사는디가 엇곡 원 인적이 고요호여, 어떤 백발 노인이 소에 연장을 식거가지고서 ㄴ들ㄴ들 오라. 저 하르방 신디 오라그네 오민 들어그네 매촌이란 거 어디우쨌 들어그네 가준. 그 하르방 오란,

“영감님 여기 매촌이란 마을이 잇어난 잇지안호파? 그 매촌을 갈라함민 어디로 잡니까?”

“아이고 저 사름 이 어디 사름이라 매촌이 이거 우리 어린 때에 들어서 이제 이디 이것이 매촌이라 호 ㅁ슬이 사름 살아났는디 아이고 뱃 말년 되었는데 당 초 그거, 어디 사름이 그런 소릴 들음이라.”

호연, 아이고 이제는 공연히 구경하다가 그만 어머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이거 큰일났다고. 여기가 우리가 살아났는디 어명도 간곳 업고 이거 큰일났다고. 그 사름이 할 수 업시 어명도 다 일러버리고 그만 다시 그 시방 약해 난디 찾아간. 그 하르방 보니까 신선들이 또 아장 바둑 뒀서. 간 인사들은 하이고 어째서 왔느냐. 이만저만 호연 간 살아난덜 찾아간 보난 어명도 업고 아무도 인적이 고요호연 할 수 업시 찾아오랴수다. 거봐라. 왜 우리 바둑 장기 두는디 배리지 말주 거 호니 뱃 말년 되어부리니 그렇게 된거라고. 그러니 너는 할 수 업시 우리광 벅험 백기 할 수 업다고. 거 그 사름은 일름이 덩기라호 사름인디 덩기라호 사름인디 그때에 신선되언 가부럿서, 끝이.

(成啓天, 男·83)

7. 외눈박이 산터의 신동

그 육지 장승에다가, [장승?] 장승 따해 전라도 장승따해 가정은 풍부하지 마는 집안적으로 그 모든 재산ㄴ튼 것은 풍부호지마는, 인재가 나오지 안호여. 인재가 나오질 안호니까 춤 그 저 지리 보는 이를 청했어. 청해가지고, 하 이 소원이 무엇이냐 호니까.

“아 우리 집안적으로 모든 재산은 풍부호디 인재가 나오질 않는다.”

고 하니,

“인재를 하나 낳도록 산을 씌어달라,”

하니까.

한 며칠 있다가. 그럼 후로 한번 나가자 하여 주인하고 더불어 나갔는데, 그 날 여기 산을 쓰며는 그 주인보고 하는 말이, 지사가,

“여기 산을 쓰며는 폐인이 나갔는데, 눈 한짝 단흔 사람이 나갔는데 명진사 해 훔 것이다. 이름을 사해에 떨칠 것이다. 그런 인물이 날 것이다.” 하니,

“이제 그러면 아 그대로 산을 잡아 주시오,”

해서 산을 썼거든.

씨가가지고 그 며느리에게 자식 나기를 기둘렸어. 기두리는데, 며느리가 얼마 없어가지고 유태해가지고 자식을 나았거든. 나니까. 시아버지는 그 기대가 있어가지고 며느리가 유태한 후에는 자꾸 며느리 그 주위를 돌아보거든. 언제나 나코, 언제나 나코, 하니까 며느리가 하룬 인제 유태한 여자이기 때문에 해산을 했어. 해산을 하나 난 보니 훌쩍 눈이 단해부렀다 말이여 단하니까.

“어떻게 인제 스나이야 지집아이냐?”

“스나인 스나입니다만은, 아버지에게 뵈 면목이 없습니다.”

그 훌쩍 눈이 단해노니까니 그 시아버지한테 뵈일 면목이 없다고 혼저라. 한 난,

“어찌 그러냐?”

“아니 난 보니까 눈 훌쩍이 단해 부렸습니다.”라고.

“아 좋다고, 아 우리 집안에 참 인재 났다.”고.

해가지고 잠지를 쳐서 그 아이를 애지중지해서 질렀는데, 그 아이가 글청을 다 님을 시작 하니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아 문일이지십(聞一而知十)으로, 열을 아 니까 알되 장승촌에 있으니까, 누구나 그걸 그저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서 조선에 인재가 있느냐 없느냐 혼 것을 알아보기 위해가지고, 아 가만있 자. 그 인장 진단이요, 범은 질고 용은 쪼르고 그 진은 용으로 보거든. 만약 예를 들어 시간을 보며는 인시다 진바위다 이러거든. 범은 질고 진은 쪼르고. 화원서방이라. 기리면 뚜렷하고 쓰면 모나다. 이걸 곧 해명해 올리라 했거든, 중국에서.

[화, 그릴 화자!], 기리며는 두렷히고 글 서째, 쓰면 모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하 임금의 그런 중국의 훈시를 받아가지고 만조백관을 모여가지고,

“이걸 해명홀 신하가 있느냐! 정승이 있느냐?”

누구나마 해명을 할질 못해. 갑자기 회보홀 일자는 바빠놓고 हु데 하 임금이 큰 근심을 하는데, 그디도 아마도, 조정에 좀 크게, 명진사해는 못해도 조정에 땡기는 기침이, 하 우리 일가의 일갓 아이가 자기 막음으로만 생각하기를, ‘하도 영민한 아가 있는데 हु번 이 아이हु티 이걸 हु번 물어보자고.’

인장진단이요, 화원서방이라 해가지고 하니까 그 아이हु티 그런 말을 했어.

“하 너 이 중국에서 인제 예의홀 그저 우리나라에 인젠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통신이 왔는데 이걸 해석홀 신하가 없어 가지고, 신하 정승이 없어가지고 이제 임금이 대단히 हु이 나고 있다.”고.

“너 이걸 알 수 있느냐.”

“아 그거 그까짓걸 알고 말고 훌 거 있습니까.”

아 경한 곧 그날 가가지고 임금에게 상소했어.

“아 우리 일가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눈 훌쩍 단한 아이가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아 그거야 뭐 알고 해명하고 할 거 있습니까, 하는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हु니, 곧 가일 강 모사 오라고. 임금이 하명을 했어. 곧 가일 다려가니까 멀리 었더지니까 친히 오라고

“그 뭐 안장진단이요, 화원서방이라, 네가 이걸 해명을 훌 수 있느냐?”

“뭐 이것만씩 훌거야 무엇입니까. 이것싸 해명 못합니다.”

아 이젠 임금이 아이 등을 독독 두드리고,

“너 그러면 이제 해명हु대로 말을 해보라.”

해를 말한 겹니다. 해가 인방으로 뜰 때는 질고, 진방으로 가면 쪽르거든. 인장진단이요, 화원서방이라. 해가 기리면 두렷히고, 쓰면 모난거라 말이며. 날이엔 हु는 것은 날 일자가 모난 거 아니라 그러니까 임금이 이젠 그 아이에게 참 탄성하면서 그 때 임금이 한 말이 있어. “장안만목이, 서울 일만 눈이 장승 불여일목이라. 장승따 눈 हु나 가진 사람만큼 못 हु다.”고. [청중 웃음]

장안만목이 불여장승일목이라. 장승따 외눈 가진 사람만큼 하지 못 हु다고, 임금이, 막 지꺼진 마음으로,

“너 그러니 너의 소감을 말하라.”고.

네가 인제 뭘 하고 싶으면, 녹이라도 먹젠허민 임금이 하고픈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가 무슨 벼슬을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전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소원이 없고 살림채나 하나 주십사,” 했거든.

살림채란 하는 건 뭐 국가에 녹도 안 먹고, 그자 진사모양으로 녹도 안 먹고 그 집에 와서 그자 살림채해도 임금이 어의로 탁 써준 것은 큰 양반이 되어. 옛날은 양반이 되면 모든 부역도 안 하고 세금도 안 하고, 보통 서민만 그런 건 다 하거든. 그렇게 했는디, “하 너 소원이 이상은 없느냐”니까

“저 소원은 그겁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등에 살림채를 어인으로 써 주니깐 돌아갔는디 그 사람 일홈이 명진사해라. 일홈이 사해에 떨친 거주게. 아 산을 쓰민 다 그렇게 써야 하는 거라. 게 사람이 눈 흘짝이 없더라도 그렇게 나오니까니. 그러니 임금이 오직 기뻐야 장안, 서울 장안이야 장안만목이 붙여장승일목이라, 장안 일만 눈에 장승따 눈 하나 가진 사람만큼 못했다고 하여.

(강응수, 男·77)

8. 이천냥짜리 名占

전라도에 유명한 권부자라고 성이 권간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말이라. 에 첨 향교에 땡기면서 벼슬을 가졌지마는 벼슬보담도 부자가 유맹하니까 벼슬이름은 안 불러주고 권부자 권부자 하는 디. 첨 마음이 착하고 온순하고 또 워낙 부자니깐 하인도 많이 쓰고. 근데 권부자집에 가민 어떤 거지도 지나 가면 여비도 주고 그자 거기서 마음이 훌륭한 참 훌륭한 분이었지. 근데 어떻게 전생에 무슨 죄가 이셨는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도 일흔 넘어 가지고 자식을 하나 봤거든. 아들하나 봤다고. 자기 인생에 황혼기가 돼노니까 자기도 그자 참 언제 죽을지도 모른 그런 나이에 자식을 봤지만, 욕심이란게 그런 거거든. 에 이왕이면 손지는 못봐도 자식 메느리나 봐그네 죽자고 그래서 아홉살 될때 장가를 보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일흔 아홉살쯤 되시겠지. 그 하르방이

그런데 그 하르방은 이제 워낙 부자고 하인들이 충실하게 일하고 하니까 아들도 그자 욱아가지고 장개도 보냈고 하니까. 한갓 나무 그늘에서 그자 동네 사름하고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들이 죽었다고 한다 말이여 야 일흔에 생긴 자식 일흔 아홉 나그네 그가 장가를 보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그 고통이 야 뭐 이루 형용할 수가 업거든. 아 그래서 어째서 우리 아들이 죽어시리요.

“하이고 강보십서 큰일 났수다. 죽었수다.”

야 내 무슨 전생에 죄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단 아들마저 침 늦게 얻은 자식마저 죽는고. 그러니 세상이 캄캄해 가지고 뭐 아무 생각도 업서, 그래가지고 메느리는 열네살이고 이녀 아들은 아홉살인디. 에 메느리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도 청춘과부가 돼가지고 니 설움인들 어떡허냐 침 아주 대단하겠지만 나도 아무 바랄 것도 업고 희망이 업다고.”

“예.”

“청춘과부가 돼그네 안됐지마는 이제 나도 그자 생각이 업스니까 마음이 조끔 편안해질 때까지 조끔 다녀오마. 거 하인들도 다 재산 분집 해가지고 다 돌려 보내고 나도 그자 돈 삼천냥 가지고 그돈 다 써지민 들어오켜.”

“아, 아버님. 다녀오십시요.”

해놓고 그때는 으리한 집이고 올래도 풀이 하나도 안 났지마는 하인 하나 데리고 이제 아들 죽어노니까 나이도 많고 그래서 한양땅에 전라도에서 한양땅갔다 말이라. 가보니깐 어떤 할머니가 점을 치고 있는데 ‘하늘의 운수를 가히 알진데 어찌하여 가지고 사람의 운수를 모르랴’ 딱 서있단 말이야, 야 이 할머니 옆에 보니깐 점채가 천냥이라. 야 이거 천냥까지 주면서 점을 칠 수 이시랴 하고 하인은 그렇게 생각했고 하르방은 내가 뭐 여든 가까이 부렸고 어찌해서 아들이 죽어신가 그 원인이나 알아보고자 점치고 싶은 생각이 이서도 천냥이라고 하니까 천냥이든 큰돈이라 말이라 옛날에. 그래서 어떡코 해가지고 하르브지가 한번 여관집에 가 가지고 하인한테 물었어.

“아 이제 다 보내브리고 남은 건 느하고 나밖에 업다. 의론할 대상이란게 너밖에 업구나. 내가 점을 치고 싶은디 너 생각이 어떻하냐?”

“글세울시다. 저도 점을 치도록 권하고 싶어도 점채가 천냥이라고 하니까 가히 말도 안 나옵니다.”

“나 점쳐그네 뭐 얼마나 잘 살랴마는 내 아들이 어찌해서 죽었는지 그거나

알아봤으면 혼 생각이 이서가지고 점치고 싶은 마음이다. 느 생각이 어떠냐?”

“삼천냥 가정 나왔지마는 천냥을 점치게 해브리민 거 앞으로 그 점이 맞으면 다행이지만 그거 너무 비싸 가지고 어디 점칠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아니라 너가 점치고 싶다고 허민 나도 점쳐 보겠네.”

“아 그러민 쳐보십서.”

권부자가 점을 치는디, 거 점치는 할망은 하는 소리가 점치기 전에.

“점채가 천냥이우다 예? 천냥인 줄 알았수가?”

“알고 왔노라.”

그런데 그러믄 천냥내시오. 권부자가 천냥을 냈다. 할머니가 중얼중얼 해가고 점괘를 쓱 뽑아보니까, ‘아 황부헌작하니 연분낙배라’(뭐라마썰) 황가의 메느리가 술잔을 권하매 제비새똥이 술잔에 떨어진다. 황부헌작, 황가의 며느리가 술을 따르고나니, 따르니 연분낙배 제비새 연째 연분, 제비새똥이 낙배라 아 술잔에 떨어진 게니 그러라는게 꽤가 그거라. 황부의 여자가 잔을 권하니깐 제비새똥이 잔에 떨어진다 이겁주. 게니 권부자,

“이거 무슨 뜻이요.” 하니,

“나도 몰라요, 그자 꽤가 그렇게 나와요. 또 뒷말을 알고 싶거든랑 다시 천냥 내시오.” 혼단말이라.

자 이거 천냥만 잃어먹은 거지 뭐. ‘황가집 여자가 뭐 술 잔을 권한디 제비새똥이 잔에 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천냥만 잃어먹었다말이라. 예 이 권부자가 소위 명색의 부자라고 하는 사름인디 아 다음에 끝을 다시 천냥으로 듣고 싶은 생각이 난단 말이라. 예라 씨발노므것 다시 천냥 톡 내가지고,

“다음에 한번 봅시다.”

또 천냥 냈다 말이라. 한양세우에 한양땅 가는 가느다란 비에 한양세우에 가느다란 비에 한양세우에 문점아승이라. 점방을 물어보믄 아승 어린 애째에다 중승째 어린 중한테 점방이 어디요 문점아승이니깐 어린 중한테 물어보라 그렇게 얘기했던 말이라.

—“거 무슨 말이냐?”

“나도 몰라요 점괘가 그렇게 나와있어.” 혼다 말이라.

게니 이천냥 잃어먹었지 왔다갔다 차비하면서 그럭저럭 써버렸지. 낙심해가지고 괜히 이천냥 점쳐 가지고 잃어먹었구나. 하 게서 집에 들어와보니 자기가 있을 때는 하 올래 그자 풀이 하나도 업섰는디 와 보니까 올래도 풀이 무성했고 아들도 죽어부리고 메느리가 하 인제는 마음이 좋아가지고,

“아버지 어떻하영 와 집데가?”

“아 돈도 다 떨어지고 그자 영 왔네 그간 별일 어셨느냐?”

“아이고 별일 어셨수다. 아버님 밤중에 돌아왔으니깐 약주라도 한잔 험서.”

그래 잔을 준다 말이라. 잔을 받아먹젠 하니까 제비새똥이 잔에 딱 떨어져 하 이거 가만히 보니. 아따 메느리가 황가겠다. 황가의 메느리가 잔을 권하니 제비새똥이 잔에 떨어진디. 제비새가 아마 천장에 날아가다가 땅에 딱 떨어진 모양이여. 이상훈 생각이 난다 말이여. 이노므 점괘가 이상하디. 게도 술을 마실라고 하는데,

“아버님 전, 술드세요 해놓고, 전 고단하니까 먼저 자겠습니다.”

하고 메느린 가브리고,

“음 기여, 에 밤도 야심하니까 넌 가서 자라 나혼자 그자 나대로 그자 자작 자음 나대로 비와가지고 나대로 술 머켜.”

해서 잔을 탁 비우니 제비새 똥이 딱 떨어지는 거라. 아 그래서 점괘 생각이 가마듯이 있다가 나는 거라. 그래서 야 이거 황가의 메느리가 잔을 권하매 제비새똥이 잔에 떨어진디 허니 이상하디. 게도 자기집에 기르고 있는 개가 이셨다. 개 한티 그 술잔을 뱉이니깐 아 그 개가 술 먹어서 빙빙 감장돌다 죽어분다 말이라. 피를 토해 가지고. 아따 이거 메느리가 극약을 뱉었구나. 이거 메느리가 우리 아들 죽이고 나 깎지 죽여가지고 나 재산 다 먹젠 험구나 한 거를 알았다 말이여. 게서 메느릴 불러오라 해가지고 거 하인시켜 가지고 불러오란 드리태작하니까 거 자기 아들하고 결혼하기전에 애인이 이셨던 모양이라. 게서 아들 죽여부리고 그 영감도 얼마 업스면 죽을 거니까, 경헤그네 그 재산 가지고 우리 둘이 잘 살자 허는 약속이 이서 가지고 결혼 혼거라 말이여. 그제 실토가 돼어. 막 태작하니까. 게서 하이고 잘못했수다 죽을 죄를 졌수다 막 메느리가 비니깐,

“메느리 그만 패그네 살려주라.”

그리고 하인들한티도,

“너 이때까지 수십년동안 우리 집에서 고생했다. 뭣 말지거나 뭣 심 말자거나 갈라주고 나도 가겠다.”

게서 밭이랑 집이영 다 청산 해가지고 이제 어디 갈 데도 업고 약간의 여비만 가져그네 나이도 많고 아기도 업고 메느리도 그자 경 그런 사름이고 각시도 업고 흥니까. 자기 혼자만이난 가단 보니까 한양땅에 가는 디 가느다란 비가 와. 갑자기 소낙비가 온다 말이라. 아 근디 들어갈 디가 업서. 여관집의 찾젠 흥니까 뭣 물어볼 양이 업단 말이라. 문득 바라보니까 열다섯쯤 난 아이가 머리 박박 깎은 아이가 중도 아니지마는 머리 박박 흥 아이가 있어. 흥니까,

“야 이디 여관집 어디고? 비가 와 가지고 내 뗏을 때가 업나.”

“우리집이도 여관집이우다마는 하르방 누게파?”

“아이 자 여관집이 가자.”

게도 그 점방을 어린애한테 머리 박박 깎은 중 님은 아이한테 물언 여관집이 갔단 말이라. 가니 여관집 여자가 흥는 소리가,

“아이고 노인이 비 오는디 잘 왔수다.”

해그네 밥도 지면서 비레기 바라보고, 제냐밥 지으면서도 그자 얼굴 자세히 바라보고, 아침밥 지으면서도 자세히 바라보고 흥다 말이여. 게서 그 권부자 흥는 말이.

“아 쏜내는 어찌해서 내 얼굴만 자꾸 바라보는가. 내 얼굴에 똥이라도 붙었는가?”

“아니올씨다, 저 누군지 모르지마는 과거보래 한양땅에 왔다갔다 한 예가 업습니까?”

“옛날이야 내 베슬해 불라고 과거 보래 한양땅에 많이 다녔지. 전데 쏜내는 어찌해서 그걸 나한테 묻는가?”

“그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하룻밤 우리집에서 여관방에 자면서 저를 건드려 본 일이 업습니까?”

“글쎄 뭣 그런거야 뭣, 근데 그게 어쨌단 말인가?”

“그때 영감님께서 나는 전라도 권부자라는 말 한마디만 해놓고 가브리고 그 때 난 자식이 열다섯이우덴.”

아승, 우리집 여관집. 햄수다마는 게 그거라.

“그 나는 어지간히 한양 손님들을 맞으면서 돈은 벌었주마는 언젠가는 아기

아방 찾아볼라고 내가 계속 여관집만 햄수다. 겐디 당신이 십오년전에 우리집이 오라그네 우리집의 우리 아기아방 아니우파.”

그래 또 그 아이가 여기민 동숙인가 동식인가 몰라도 그러는 거라. 그래서 “야 느 아브지 만났다. 자 이제 인사 드려라?”

“어머니 경 흡니까?”

경헨 그 아이가 하르방 훈티 인사 드리고, 겐 그 (창취불능) 아들 뭐 열다섯 난 걸 봉그고 잘 살았다고 햏여. 그게 멩점이주게. 천냥 이천냥 줘가지고 비싸다고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게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말이 황부헌작하니 연분낙배라, 천냥 주어가지고 아깝지만은 그 다음에 한양세우에 문점 아승이라 훈말도 뭐 천냥주고 아깝주만은 알고보니까 아들이 죽은 원인도 알았다. 경해도 아들은 아깝고 죽었지만은 미리 생긴 아들이 열다섯 난 걸 봉갔으니까 아 (창취불능) 경헨 이천냥도 그런 것은 점을 쳐도 신점이라. 그러지 안 햏여. 경햏지 안 햏여 그래서 그것도 나가 볼 때도 점에 대한 이야기가 맞았다 생각햏여. 그거는 좀 우리가 볼 때에도 멩점이라 볼 수 있고 나도 점취 가지고 말이여. 마 쇠 일러 먹은거 한달만에 찾아줬는디 햏안하게 기가 막히게 찾아줬어. 경훈디 술 한잔 밖에 안취. 나도 천냥 정도 받아시민 멩점 곶아렌 소문 날전디.

(鄭雨龍, 男·57)

저 세경의 옛날에 인간들이 느릴때에 인간들이 느릴때에 세경심중 하늘님이 셤주게. 시난 그 들의 가민 밥 먹을 때에 밥을 캐우리주. 그거 상세경이 옛날에, 상세경이 인간드레 몬 씨, 보리씨, 조씨, 나룩씨, 모물씨, 콩씨, 문딱 왁 황에서 가 인간드레 내릴 때에, 인간들에게 내릴 때에 이제 아홉 쇠 아홉 장 남헨 बात을 갈암시난, 느리다네 점심을 먹엄시난, ‘밥이나, 우리 넘어가는 사람 시장햏난 반이나 햏끔 도랜 햏난,’ ‘밥 줄거 업덴,’ 경햏뎡 아이 취텡 밥을 먹은, 고약스럽다 햏여 그 사름이 이제 뱀보섭에 쌀섭 취두고, 아홉 장남에 팡 나기쫘 취 두고,

뜨루 쇠 아홉게 몬 봉아기쫘 줘두고, 경헨 그 법으로 인간드레 내려서 느리 당 보나네, 질염에 청태진 마귀할망, 이제 저 막 홀아방과 홀어멍, 하르방은 죽어붙어 막 가난하게 사는 할망과 아들하고 헨 강 따위 밧을 갈암시나네
“아이고 점심이나 해오랏겐 하끔 줘서, 시장헨 우린 인간데레 못 내리쿠다.”
경하난,

“예, 논쟁이범벅 헨 오랑 있수다.” 주난 먹어 그네.

“이 집의 농살 얼마니, 이 밧디 농살 얼마니 제겨똥 내립니까?”
하나네, 그자 가문쇠, 가문쇠는 그 저 검은쇠주.

“가문 남쇠로 잔뜩 혼 바리하곡, 우리 애새끼 정할 것만 정해줍서.”
경하영 내릴때에 그 법으로 그것과 그 농춘이 그 세경심중 하늘님이 다 이제 시는겨주게. 그 무단히 씨가 정흔게 아니난, 경하니 그 법으로 저승할망 저승 하르방, 이제 논에 가세. 제 드리젠 하민 저승할망 저승하르방, 불할망 불하르방 경헨 제 드리주게. 경헨 그때 세경과 상세경이 인간드레 느령 인간드레 씨 전중 이젠 귀신이랑 못베려도 옛날은 생인 인간 저 아주 옛날에 우리 하르방 산 때에 이제 푸죽쇠가 말을 곤고 이제 몬 돌이 말을 곤고, 이제 가지낭에 목 메여 죽고, 접시물에 빠져 죽고, 그때 시절엔 세인들이 인간들에 느렸덴 헨게, 그때 법으로 우리 농살 해먹어도 다 그거 옥황에서 제겨주낭 해먹는거 아니라 게. 경헨 그 법으로 저승할망, 저승하르방.

(장순자, 女·65)

10. 중국 문장과 어부의 화답

그때 당시 중국 문장이 한국을 나오면서 한국에 뭐 인재가 있느냐고 해가지고 나올때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리 뭐 잘 아는 이가 있어가지고 틀림없이 이 질로 해서 중국 문장이 올 것이다. 그 하르방도 혼짝 눈이 없는 하르방이라. 허 그 배를 대면서 하는 말이, 고기를 낚으러 나갔으니까니 그 우리나라 하르방이, ‘틀림없이 중국 문장이 우리 배들 부근을 지나면서 무슨 말이 실 것이다’ 해가지고 대기해 있는디, 마침 중국 문장이 배를 타고 넘어 올 때에 그 하르방 보고,

“조탁어우목이로고”

새는 고기잡는 하르방의 눈을 쫓아붙었고. 훌쩍 눈이 단해노니. 그 문장이란 것은 코가 비뚤어진 것이니까,

“풍취문장비로고.”

바람은 중국 문장의 콧등 위의 불어 붙었고(일동웃음). 그때 점나가지고 배를 돌려서 중국으로 가버렸어. 조선의 이런 피기잡는 하르방에 저런 인재가 있는데, 원 부렴을 당하겠다고.

[중국에서 오던 문장가가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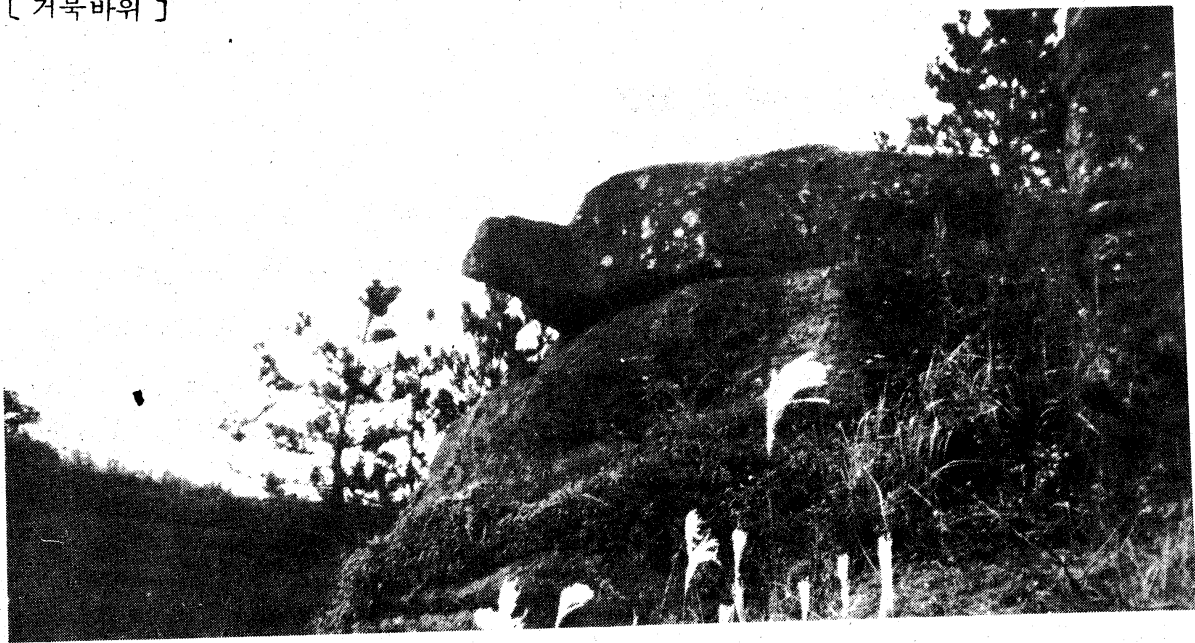
예. 아 그 중국에서 오는 문장가가 하르방이 눈 훌쩍 단한 하르방이 피기 낚 암시니 웃으면서 조탁어로목이로고, 눈 훌쩍이 없단 말이지 하니 중국 문장은 콧대가 비뚤어졌단 말이며, 영 베려 보다가, 풍취문장비로고, 바람은 문장의 콧대에 붙어부렸고, 코가 멜싹하니까(일동웃음).

저 피기잡는 하르방이 이만할 적에는 가서 큰 부렴을 당하겠다고. 그 배를 돌렸젠 해주게. 배를 돌리라고. 이 한국에 이런 인재가 있다고.

[거 어디서 들은 거괘?] 거 우리 어릴 때, 글 읽을때 들은 거주게. [글 읽을 때 서당 선생님한테 들은 거괘?] 예.

(강응수, 男·77)

[거북바위]



信 仰

目 次

- | | |
|----------|---------------|
| I. 概觀 | (4) 國祭 |
| II. 部落信仰 | 2. 巫俗信仰 |
| 1. 儒式部落祭 | (1) 당밭(밭) 할망당 |
| (1) 里酬祭 | (2) 배코스 |
| (2) 祈雨祭 | III. 結 語 |
| (3) 天祭 | |

I. 概 觀

大坪里(난드르)는 安德面事務所에서 동남쪽으로 4.5km, 西歸浦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해변마을이다. 북으로는 軍山, 동으로는 河川 大東橋를 경계로 中文面 下狔里와 접하고 있다. 서로는 自然景觀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속칭 「조순다리」 절벽으로 둘러쳐져 있고 남으로는 大海와 면하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2백 50여년 전에 梁氏 先祖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마을은 4·3사건 때에도 피해를 입지 않은 곳으로 2백여호의 작은 마을이다. 과거에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半農半漁로 특용작물을 생산하는 등 잘사는 마을이 되어 가고 있다.

마을에는 사찰이 없어 주민들이 和順까지 가며, 국민학교 앞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을 뿐이다. 個人信仰이나 祖上崇拜, 家庭信仰이 다른 마을들에 비해 별 다르지 않으므로 部落信仰을 중점으로 기술하기로 하고, 특히 巫俗信仰을 길

이있게 다루기로 한다.

II. 部落信仰

마을 공동의 部落祭인 里醕祭는 지금은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행해졌다고 한다. 국민학교에서 북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당밭(어떤 이는 ‘팻’이라 발음하였다) 할망당이 있다. 여성들은 不運이 있을 때 이 당의 메인 심방 정행화(女·75세)를 빌어 굿을 하고 배코스도 지낸다.

1. 儒式部落祭(李基芳(男·75세)氏의 제보에 힘입었다.)

(1) 里醕祭

① 祭名: 里醕祭 혹은 農醕祭라고도 부른다.

② 祭神: 軍山之神位, 里醕祭神位이다. 軍山之神位를 上位의 神으로 친다.

③ 祭日: 6월달 조농사를 마친 후 鄉會에서 택일하여 子時에 행한다.

④ 祭場: 醕祭壇이라 불리우며 松淸골 동산에 있다.

⑤ 祭儀管理

가) 會召集은 里長이 鄉長과 논의해서 유지에게 전부 연락하고 각 班長에게 연락하면 각 호에 연락된다. 지금은 이 사무소에서 스피커를 통해 전달된다.

나) 名稱은 鄉會라고 한다.

다) 鄉長은 資格이 3代이상 마을에 거주하고 나이가 많으며 덕망있는 사람으로 하고 選出은 鄉會에서 한다. 단 鄉長이 죽었을 때에는 죽은 뒤 3년상이 끝나면 뽑는다. 그 전까지는 生魂으로 모신다.

라) 參加者는 각 호에서 한 사람씩이나 不參時 벌칙은 없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잘 모였었다고 한다. 里醕祭를 위한 會議場所는 鄉舍(지금의 里事務所)였다.

⑥ 祭官의 名稱: 初獻官은 첫째 헌관이고 亞獻官은 둘째 헌관이며 終獻官은 막내 헌관이다. 執禮는 오늘날의 司會者와 같은 역할을 하는 祭官이다. 大祝은 祝文을 告하는 사람이며 謁者는 初·亞·終獻官을 인도해서 祭儀를 행하게 하는 이다. 奉爐는 향로를 들어 받드는 사람이고, 奉香은 향을 피우는 사람이며, 豫借도 있다. 獻酌은 술을 부어 獻官에게 드리는 자이며 奠酌은 獻官이

드리는 술잔을 받아 祭床에 올리는 자다. 贊者는 執禮가 부르는 笏記의 보조자이며 奠祀官은 祭物을 준비 관리하는 자다.

⑦ 祭物

가) 稻·梁·黍·稷이 원칙이지만 지금은 쌀에 二器, 차조메 二器를 올린다. 大祝이 陳設하는데 메를 올리면서 “稻稷이요 黍稷이요”라고 말한다.

나) 犧牲은 돼지 전마리(통채로 한마리)이다.

다) 幣帛은 무명 1필이다.

라) 果類는 五果(밤, 대추, 유자, 배, 사과)를 쓴다.

마) 祭酒는 淸酒로 올린다.

바) 채소는 고사리, 미나리 따위인데 날 것으로 올린다.

사) 그 외에 毛血이라 해서 돼지 털과 피를 받아서 올리는데, 이는 犧牲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한다. 또 脯醢라 해서 쇠고기를 포며서 올리고 五醬도 올린다. 祭物을 사오고 관리하는 것은 典祀官과 里長이 한다.

⑧ 齋戒: 祭日 3일전 鄉會에서 선출된 祭官들은 그 즉시 舍草에 들어가 宿 齋戒한다. 이때에는 밥을 집에가서 먹지 못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날라오게 하여 먹는다. 祭가 끝날 때까지는 집에 가지 못하고, 女子들은 주위에 얼씬거리지도 못한다.

⑨ 祭享費: 각 호에서 돈으로 수렴하는데 결정은 總경비를 산출하여 家戶에 분담한다. 그 祭享費는 각 반장이 받아 와 里長에게 납부한다.

⑩ 行祭: 干支正月 日 里醮祭 笏記

謁者引祝及諸執事, 入就壇前拜位. 西上北向立. 四拜. 祝以下皆四拜. 平身. 引詣盥洗, 各就位. 謁者引三獻官, 入就位. 西上北向立. 謁者進初獻官之左, 白有事, 謹具請行事. 四拜. 獻官皆四拜. 興, 平身. 行奠幣禮. 謁者引初獻官, 詣盥洗位. 北向立(晉詣, 盥手, 洗手, 執笏). 引詣樽所, 西向立. 執樽者舉罍, 酌酒. 引詣神位前. 北向立. 跪(晉笏), 三上香(執幣, 獻幣, 執酌, 獻酌, 灌地,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四拜. 獻官及在位者皆四拜. 俯伏. 興, 平身, 行初獻禮. 謁者引初獻官, 詣樽所. 西向立. 執樽者舉罍, 酌酒. 引詣神位前. 北向立. 跪(晉笏, 執酌, 獻酌, 執笏). 俯伏. 興, 平身. 小退跪, 讀祝. 跪(晉笏, 執丑, 獻祝, 執笏). 祝進獻官之左. 跪, 讀祝.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行亞獻禮. (이하 亞獻禮와 終獻禮는 初獻禮와 같으므로 생략) 飲福受胙. 謁者引初獻官, 詣飲福位. 西向立. 執事者以酌授獻官. 獻官受酌. 飲爵卒, 以授執事者. 執事者, 受虛酌. 執事者以胙授獻官. 獻官受胙. 引降復位. 四拜. 獻官及在位者,

濟州島部落誌(Ⅰ)

皆四拜。興，平身。撤邊豆。祝進撤邊豆。四拜。獻官及在位者，皆四拜。興，平身。行望燎。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北向立。毛血於坎。蓋燎。謁者進初官之左。白禮畢。禮畢。謁者引獻官出。祝及諸執事俱伏拜位。皆四拜。祝以下皆四拜。

이상의 笏記와 같이 奠幣禮, 初獻禮, 讀祝, 亞獻禮, 終獻禮, 飲福, 撤邊豆, 望燎의 順으로 進行된다.

⑪ 祝文: 祝文은 해마다 그 해에 所願하는 사항을 漢文으로 文章化하여 造祝한다. 전년에 쓰였던 祝文은 지금에 와서 행하지 않으므로 분실하여 입수할 수가 없었다.

⑫ 飲福: 祭를 지낸 후 舍草에 돌아와 고기를 삶고 祭官과 동네 유지들을 청하여 祭 지냈던 음식을 먹는다. 과거에는 계급별로 음복을 하였는데, 그 뒤 같이 앉아서 먹었다고 한다.

⑬ 本郷堂參拜: 里 酺祭에 쓰일 祭物에서 조금 떼었다가 祭가 끝난 즉시 祭物을 차려 堂에 가서 祭를 올린다.

(2) 祈雨祭

① 祭名: 祈雨祭

② 祭神: 天神之神位

③ 祭日: 가뭄이 들 때 택일한다. 大坪里 한 마을만 祭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軍山을 둘러싼 다섯 마을(倉川里, 柑山里, 大坪里, 上貌二區, 豫禮里)이 모여 祭官을 뽑고 祭를 지낸다.

④ 祭場: 軍山 꼭대기에서 祭를 지내는 데 이는 軍山이 다섯 마을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라 한다.

⑤ 期間: 비가 올 때까지 毎日 祭를 지낸다. 行祭하면 비가 꼭 내린다는 깊은 믿음이 있었다. 이는 과거에 지낸 祈雨祭가 하루면 비가 와서 끝마쳤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⑥ 祝文: 祈雨祭祝(과거에 행해졌던 것을 입수하였다.)

鎮茲南海，造化無窮，吐霧行雲，施雨呼風。天高水下，龍德正中，從古有旱，禱則必應。自夏至秋，旱魃爲虐，草木方枯，川澤既涸。望望雲霓，將至數月，卜茲吉辰，敢竭微誠，神其聽之，所願既成，七月周苗，千里殷葉。亟旋化柄，沛然而下，扶風連朝，並州潤河。使我封疆，歲仍泰和，謹以牲幣，祇薦于神，尚饗。

⑦ 기타 : 里醮祭와 同一하다.

(3) 天祭

世變이나 큰 일이 생겼을 때 여러 마을이 모여서祭를 행한다. 犧牲으로 소를 각을 떠서 올리며 나머지 것은 里醮祭와 같다.

(4) 國祭

나라에 일이 있을 때에 지내는 것으로 祝만 다르지 그 行祭는 里醮祭나 祈雨祭와 同一하다.

2. 巫俗信仰

(1) 당밭(팻)할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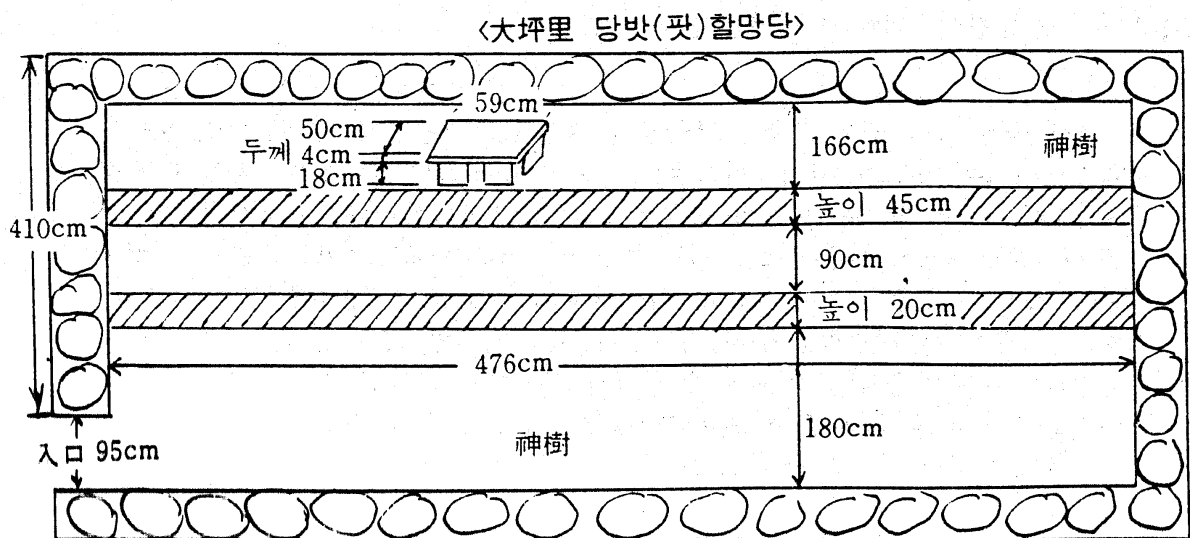
대평국민학교에서 북쪽으로 500m쯤 떨어진 곳에 堂이 위치하고 있는데, 큰 神木이 세 그루 있다. 이곳을 당밭(팻)할망당이라 부른다. 지금도 짝그른날(홀수날)에는 단골들의 주문으로 堂에서 푸다시를 한다. 다른 곳과는 특이하게 이 堂神이 本郷神, 生業守護神, 育兒 내지는 疾病守護神의 職能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① 名稱 : 당밭(팻) 할망당

② 祭神 : 당밭(팻) 할망

③ 祭儀執行者 : 정행화(女·75세) 심방이 당에 메인 심방이다.

④ 形態 : <그림 1>



〈그림 1〉

⑤ 당비념 : 다음은 李基芳(男·75세)氏가 들려준 堂神의 내력담이다.

그 할망이 아마 고집치(性質이 바르지 못함을 뜻함) 못해났던 할망모양이여, 근디 그 배 아홉, 뒷 몰 아홉, 쇠(소) 아홉 그랬다고 하는데, 저 남바당(南海)으로 배가 나가민 배 탕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양 떨어가지고 물건을 하영(많이) 끌어다가 아마 부자(富者)로 살았던 모양이여. 그니 그렇게 해서 재산(財産)이 많아 노니 지체를 못하거든. 자, 처릴 못하여, 그러니까 혼번은 중이 동냥을 왔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

“하. 내가 이거 원 귀찮아서 못 살겠다.”

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 하라는 대로 하시오. 바당을 향해서 말이여 푸는체(箕) 있잖여? 푸는체를 자꾸 이렇게 빈 푸는체 부끄면서 ‘이 재산 없이 해 달라’고 자꾸 빌라”고

그리해서 하루는 어느 기회인지 몰라도 말이여, 큰 바람이 불드니 놀(큰 파도)이 불어서 확 쓸어가 버려서, 집과 그 뒷을 확 쓸어가 버리니깐, 예, 그 할망이 아무것도 없었는디 그 다음에 당귀신(堂鬼神)이 되어서 여기 모셨다, 이렇튼. 누가 모셨는지도 몰라요, 그 년대 아는이 없어요.

다음은 정행화 심방의 당밧할망 본풀이다. 다행히 정 심방이 조사자들을 위해 제물을 차리고 당밧(밧) 할망당에서 요령을 들고 비념을 해 주었다. 壇(테라 불리움)은 하나이고 그 오른쪽과 앞쪽에 큰 당나무(神樹)가 있었다. 주위는 돌담으로 둘러 있었다. 나무에는 여러 색깔의 형질이 매달려 있었다. 큰 神樹에 햇빛이 가리워져 땅이 축축하였다. 주위에는 전에 지냈던 祭物 부스러기가 있었으며, 음침함이 더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공선 공선 가선 공선 서중남 서준공선 일룩끼는 황송홍되 저의는 정광실수웁되 날(日)은 어느제 날이우며, 돌(月)은 갈라 어느전 돌이우건. 을축년 을축년입네다. 이진 말룬곤디 영청 유월은 오닐날 스므날되네다. 당밧한집님전 이진 난시본판 과방석 신풀젠 오랏수다. 누가울 어떠혼 인간조손이 드는 공스. 메는 갈라 시업준 국궁스 국궁스호고 “는 중문리(中文里)서 간디?”(조사자: 예, 예)는 중문리 여리동(猊里洞)서 서귀포서 오랏수다 영 허영 한집의 대학출신인디 씨의 즈손 스물에 다솜술 이거 이디서 성진아방 태(胎) 술은 땅입네다. 이 아기도 한집의 호적(戶籍)배 촌지고 나가민 불씨 생산(生産), 문서(文書) 촌지 아닙니까 호적배 촌지외다. 스물다섯 조이 양부미(兩父母) 못만낭 어멍 돌랑강 시에서 중문리강 사는 아이 거느리영 오닐 대학출신인디 즈손 “시의서간 느 공부해다”(조사자: 예) 시엿 중서 여러 동서 거느런 오랏수다. 주장삼아 성은 고 씨, 곧 서른, 서른 넷, 곧 서른 (조사자: 서른 넷이우다) 서른 네살(조사자: 성

은 고씨우다) 성은 고씨 거느리영 오랏수다. 요딘 스물(조사자 : 스물 둘마썸) 성은 어멍(조사자 : 성은 임(任)씨 마썸.) 임씨집 스물두살 영호영 주장호영 한집의 지국정성 올리곡 옛날 역사(歷史) 난산국 동판국 시조나켜 마광석 신평저영 홀네다.

한집님 아방국(父)은 옥황도심네, 옥황도심네 아돌롭서 아무때도 혼술 두술 열 다섯나난 어멍(母)눈에 시지나고 철실로 아방눈에 꼴리나난 우실려단 이젠 청세덜으고 흑세찢허영 흑세 덜으곡 청색찢 띄어놓고 앞원 말광 놀용놀제. 뒤의 학이 새 그려놓고 청세덜으로 망세 되려 놓아놓고, 이때엔 제육기난 금시상(今世上) 귀양 마련하단 청구름 말미온트르 뽕구름 옛날 경판 금시상에 귀양 마련하단 불미오름 동어깨로 산썰(山血), 물썰(水血) 잡아 느립데다. 느리영 이때엔 느려사저 느려사저 북더나 북더른 동산 느령 앓앙 이젠 좌우청용 야 보앙 이때에 배웁끼는 아넬서리다. 아이고 아 이쁜 산썰, 물썰 잡앙 이디 안잔 앞인 백포단을 둘러놓고 금바둑 장기바둑 두염디니 동벽지(東壁左) 하로백관똥네다. 하로산성(漢擎山城)에 안스뭇 뒷밭딜로 스앙스앙 아홉 성제(兄弟) 갈라난다. 가지갈라 큰 성님은 수산 울툼마루 영주, 들채 췌채 서흥리(西烘里), 동흥리(東烘里), 우산국, 제산국 마련홀데다. 그후엔 되웁기는 영 다섯, 요조채 당올래로 중문리 느리영 불목당 한집님야 당밭 예산 아홉아기 단말층 거느리고 정월 대보름날 대제일(大祭日)받고 이때에 이하 ॥ 똥채 됴네다. 되웁기는 야 당올래로 느려산 가지갈라 한집님광 뇌발주근 거느림 이젠 올라사보젠 그 이름 옥황신네로구나 합장배례(合掌拜禮) 허여 이때 일이 무엇이다. 동백, 서백 허여서 당올래로 정월 대보름날 대제일 받고 팔월 추석 대제일날 받아 선달열려어 부난 앞의 앞이멍 허님이여 뒤이멍 뜯님이여 월궁의 췌이 앓앙 이만호민 어떠호리 밤일췌에 부배(夫婦)간을 무영 딸이 하나 두게 쇠게 뇌게 다섯 요섯 성세 탄생홀다. 이 애기덜 혼 술 두 술 열 다섯 시오세 난을 가난 큰똥아기 가지 갈라. 열리 당개(唐浦) 가는 중선, 나오는 중선, 나 아홉, 말 아홉, 쇠 아홉, 섬 아홉 진상 바찌라. 영허영 야 들채 똥은 망밭 스커리 아장 가는 곡석소리, 오는 곡석소리 내춘지여 망밭 스커리에 아장 야 일제 왜췌때엔 돈 부수와부난 게우덩어리 강 그때 집 지성 산때에 양 앞의 안장 낫단 이세 게우덩어리에 오란 오셔 아잔 오씨가 지어 한집의 그영집사됴네다 영호곡 네개, 췌채 번내(和順) 원당밭 예즈 부인 뇌채 삼감세미 일췌중저 도고 소니, 다섯개 저 창고내(倉川) 닥밭할망입네다 경호여 당밭 중밭 가지갈란 영호고, 이 요조채 똥은 야 아바님 느단어깨 전신당 한집님. 이 므을 한집님은 영급호고 봉에눈(鳳眼) 부름뜨고 중선 아흔 거느리고 오는 중선 아홉 거느려 들기금 말 아홉 시느리고 쇠 아홉 거느령 천하거부(天下巨富), 일부재(一富者)로 귀한 것도 엇이지고 천한 것도 엇어지고 부귀영해(富貴榮華) 삼데다. 이때엔 어멍호리, 호북날은 동개남(東觀音)이 상중절(常住寺)의 스님, 서개남(西觀音)의 금불당(金仏堂)의 부처님은 물러다니단 느려사명(청취불능) 어떠하민 우리 당과 우리 절은 현당이 되어지고 현절이 되어 지난 권제삼문 받아당 현당, 현절 수리호젠 느릿수다. 어멍호민 귀흙 알고 어멍호민 천흙을 알것느냐. 귀흙 천흙 알테전 머리입로 대말치 대무똥 굿문 발라 두 일췌 열 나흘 췌어봄서 말나옴서. 두 일췌 열 나흘 췌어봄서. 대아홉밤 두 일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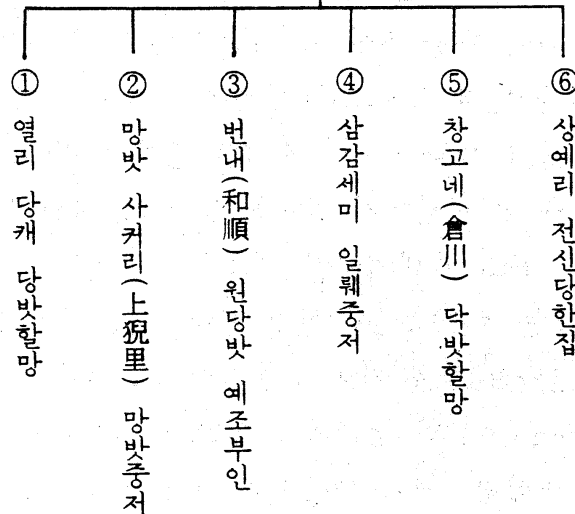
濟州島部落誌(I)

열 나홀 싯어보곡 저 올래에 굿문 발라 (청취불능) 하올날 두 일뤼, 열 나홀 햄
시민 알을 도리 있수다. 권제삼문 내어 준게 저와 ㄱ찌 허염더니마는, ㅎ룻날은
요왕체스(龍王差使) 무섭고 서꺼운 구살 체삽네다. 용구체스 야 붕에눈을 부릅
뜨고 서안가슴 열켜지고 이때 야 동숙 ㄱ면 서흥 측은백은 두루 장식 ㄱ든 홀목
쥬거선 아끈 돌풍 불러준다. 모든 신세브름 불러주난 한집님 살아나딘 확 몰무
가 난 대추도 엇이 문짝 꺾어간다. 꺾어가난 한집은 건군에 떤 어딜가고, 망실
을 치돌아 못쓸레라. 옥황소리 듣기싫다. 올라사저. 올라사저 산썰 잡아 불메오
름 서어깨로 산썰 물썰잡앙 이디 오랑 앓앙 정주허영. 그때 양씨 할으방 한집이
어간 삼아전 이젠 일도 이시낭 그때 양 양씨(梁氏) 난드르 양씨칩은 상달입네
다. 어간 삼아 한집님은 붕에눈을 부릅뜨고 삼각수 거스르고 ㄴ단 어깨 선신국
을 거느리고 윈 어깨 화덕진군(火德眞君) 거느리고 거미와지 풀찌 집어매영 이
젠 천근 활은 백근쌀을 ㄴ앙 쏠 혼되를 노민 천리가난 만리가나 서양각국(西洋
各國), 동양삼국(東洋三國)을 가도 어딜가도 한집이 부귀옹해 시켜주곡 이 애
기덜 멘장(面長)도 시켜주고 일본(日本)도 가민 문. 한집이 열심하면 부귀옹해
시켄 문짝 좋은 집덜도 나서곡 일본도 가민 저 고은 큰 공장덜도 나수광 이제
이 난드르 이칩이 잡읍니다. 이칩이덜은 일본가도 부키 옹해 시킵니다. 한집은
수덕종고 버내종고 人心종앙 이디 안жат건 앓아 천리 사만리 영 정월은 대보름날
대제일, 초 일뤼, 열 일뤼, 스물 일뤼, 초 일뤼 앓앙 살아동동 열 일뤼 이 애기
덜 진상받자, 앓앙 사이종제들 대제일받고, 스므 일뤼 떨어진 즈손덜 야 어서
대제일 받아 가는 줍수(海女)도 바치민 양 남부저기 전부차지랑 부귀옹해 시키
곡, 이 난드르 양 이칩이 잡앙 검장 노아도 피기 흘 이룰씩 며칠 퍼넵니다. 이
디 앞벌에 금장낭 한집은 요왕을 촌지ㅎ곡 선왕을 촌지ㅎ여 어디 왜국배 오라건
검자허젠 허당 한집이 치성 안행 모진 돌풍에 오꼳 손잡앙 갓쑤다. 한집은 영홉
네다. 이 애기덜 봄서. 이 대학생덜인디. 한진이 역사다깁 가그네 다 이제 다
저 어느 모실이라도 살포ㅎ젠 ㅎ난 죄가 엇습네다. 한집이 이 즈손들 가는디랑
오는디랑 재수풍 시켜줍서. 이거 스물다섯 이거 한거이 되어 이씨 즈손인디. 옛
날은 양썬 상단골(上丹骨), 이썬 중단골(中丹骨), 이젠 동카름 고썬 하단골(下
丹骨)인디, 한집에 서른 네살이가 고씨가 오란 치장ㅎ영가건 육질가나 제줄가
나 ㅎ건 천스망을 일뤼줍서. 한진이 아자찌 거닐릅서. 다 막이그늘낭 즈손창성.
오곡번성. 육성만발 시켜줍서ㅎ영 한집은 수덕종고 덕성종고 ㅎ난 가는 중선 나
오는 중선 막 거느령 어딜가도 부귀옹해 시킵니다. 이 자손덜 영ㅎ영 한집님 역
살 다깁 가건 다 기재영 모을고 양 영ㅎ영 모두 영ㅎ건 한집이 가는디마다 이자
혹생들 팔조자본 시켜줍서 요새영 데모관이 많ㅎ영 혹생들끼리 데모관에 들거
맙서. (청취불능) 한집이 등장 홉네다. 오늘날은 일도 굵 ㅎ난 이 자손덜 그냥 올
수도 없고 재염초령 오랏쑤다. 삼국을 고장썰 동이 ㄱ득 낭퐁이 ㄱ득 ㄱ득 (청
취불능) 시와 삼천택이 이 정성을 받읍서. 현 청이 성감 산 금이꿈에 이제 그냥
보수 받읍서. 집을 닦가야 이태백이 금수주나 공득주나 은잔없다 따르부나 넘어
가당이라도 한집이 이제 막 양 한집이 등장 올립니다. 큰 스망을 일뤄줍서. 만
소망을 일뤄줍서.

辭說을 다 마치고는, 세 조사자에게 쌀점을 차례로 해 주었다. 그리고는 祭物을 조금씩 떼어 祭壇에 던졌다. 특히 이 堂神이 本郷神 외에 生業守護神의 職能을 겸하고 있으므로 제단 왼쪽으로 船王에게 祭物을 던졌다. 船王은 生業守護神이다. 그 오른쪽에는 堂할망의 아버지인 동백자하로산 옥황신네를 모시고 있다. 그러므로 이 난드로 당밭할망당에는 세 神이 坐定하고 있는 셈이다. 堂할망의 계보는 그림(2)와 같다.

〈堂할망의 계보〉

아방국동백자 하로산 옥황신네 — 어명국 족다리 대서부인



〈그림 2〉

(2) 배코스(강웅식〈男·77세〉씨 제보에 의함)

① 祭名은배코스

② 祭神은 船王이다. 사람들은 船王을 쥐라 생각하고 있으며, 머느리라 부르고 있었다.

③ 祭日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1년에 한번 심방을 빌어 巫式으로 祭를 지낸다. 時期는 正月이나 二月에 행하며, 심방은 이 마을의 새심방(정행화)이나 외지 심방에게 부탁하여 지낸다. 이와는 달리 약식으로 每月 초하루와 보름에 두번 지내기도 한다.

④ 祭를 行하는 場所는 보통 배의 이물(뱃머리), 기계방, 도모(키 보는 곳) 등이다. 이물은 특히 船王이라고 하여 모신다.

⑤ 時間을 보면, 과거에는 이른 새벽에 하였으나 지금은 한가한 시간이 되면 아무때나 지낸다.

Ⅲ. 結 語

大坪里에서 男性들이 중심이 된 儒式部落祭는 사라졌지만, 女性들이 중심이 된 巫俗信仰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었다. 바다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런 신앙이 심리적 위안이 되고 있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행해졌던 里輔祭와 祈雨祭는 다른 지역과 특이한 점이 있다. 곧 里輔之神位 외에 마을 뒤에 덕 버티고 있는 軍山之神位를 모시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神을 먼저 모시느냐에 대해 논란도 있었으나, 대체로 軍山이 난드르를 내려다보면서 마을을 지켜 준다는 생각에 軍山之神을 먼저 모신다고 했다. 祈雨祭는 보통 한 마을에서 지내는 것인데, 여기서는 軍山 둘레에 있는 다섯 마을이 모여 軍山 꼭대기에서 지냈다.

巫俗信仰에서 배코스는 보통 1년에 한번 지내는데, 여기서는 그것 말고도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간단히 祭를 지내고 있었다. 또 이물(뱃머리)에 제물을 버려 船王을 모신다. 船王은 쥐라 생각하고 있으며 쥐를 며느리라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며느리가 내리면, 배가 안뜰다는 俗信도 있었다. 쥐라는 것은 기후를 아는 동물로, 說話 속에서 보면 큰 태풍이 불려고 하면 배에서 내려버린다. 쥐가 배에 그대로 있는 것은 그 배가 항해를 순조롭게 하고 곡식 등도 많이 실어 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쥐를 船王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濟州 堂神들에 대한 職能別 또는 性格에 따른 分類를 보면, 本鄉神, 生業守護神, 育兒 내지는 疾病守護神 등이 있다. 本鄉神은 同一 信仰圈 내의 土地와 住民의 諸般事象을 차지하여 수호해 주는 神이고 生業守護神은 수렵·어업·농업·축산 등 信仰民들의 生業을 수호·관장하는 神이며, 育兒 내지 疾病守護神은 주로 어린이들의 產育과 治病의 職能을 갖고 있는 神으로 이 神에게 빌면 허물·옴 등의 피부병 등의 效驗이 있다고 믿는다. 大坪里 당뱃할망당은 특이하게 세 職能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 보통 마을에 堂이 서너 개가 있어 세

職能이 나뉘는데 이곳은 세 職能이 統合되어 있었다. 그러기에 이 堂에는 당뱃할망 말고도 그 아버지와 船王이 좌우로 모셔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倉川里에 속해 있을 때는 이 당뱃할망당이 바다에 접해 있으므로 生業守護神的인 性格만을 띠었다가 倉川里에서 분리됨에 따라 세 職能을 전부 나타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당뱃할망의 여섯 자매들과 주위 지역의 여러 堂에서의 堂내력담을 통해 性格을 규명해 봄으로써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을의 部落信仰을 종합해 보면, 마을제는 노인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고, 巫俗信仰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 전체를 뭉치게 할 수 있는 機能의 部落祭들이 점점 소홀히 여겨지는 경향이 짙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사지를 떠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

〔기자석인 아기업개돌〕

〔‘비진기정’이라 불리는 병풍바위〕



128, 129, 130